민족화해

권두 인터뷰
김삼열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특집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문제와 세계질서의 변화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
백두고원 풍경 담은 안영백 작가

123 vol
2023.7+8

민족화해

민족화해 2023년 07+08월호(격월간, 통권 123호) **등록번호** 마포, 마00101 **발행일** 2023년 7월 10일 **발행인** 손명원
편집인 원희복 **편집기획위원** 김용현 이승현 이예정 임상범 전영선 정구연 조남훈 최지영 **발행기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68, 한국YMCA전국연맹빌딩 3층 **전화** 02-761-1213 **홈페이지** www.kcrc.or.kr
디자인 및 제작 (주)지원프린스 02-2272-5562

* 본지에 수록된 글들은 민화협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123 vol 2023.7+8

Cover Story

6월 2일부터 4일까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및 캠프 예그리나에서 〈2023 통일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평화의 길을 함께 그리다" 를 주제로 진행된 축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민화협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Contents

02
편집인 칼럼 | 원희복
강만길 교수의 삶을 "축하" 한다

04
특별 기획 | 편집부
강만길 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기억하며

06
포토에세이 | 조천현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

08
권두 인터뷰 | 김태우
김삼열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14
특집 –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문제와 세계질서의 변화
1. 국제사회의 행동과 북한 내부 사정 간 역학관계 직시해야 | 유재영
2. 미래지향적 통일담론 형성 | 유재영
3. 민간단체 남북협력사업의 교훈, 성과, 전망 | 이승현
4. 통일네트워크 구축과 통일공공외교 | 유재영
5. 한반도 통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편집부

26
이슈앤포커스 | 임상범
한중 수교 30년 … 디커플링과 퇴행

30
우리의 역사 | 김병기
의열단 부장(副將), 이종암을 기억하며

32
청년 칼럼
① 대북 분야의 '지속가능성' 을 묻다 | 김지은
②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 국제 정세를 보는 힘 | 이정도

36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 | 황지은
백두고원 풍경 담은 작가 안영백

40
민족화해 네트워크
① "평화의 길을 함께 그리다 !" 2023 통일문화축제의 현장으로 ! | 이으뜸
② 롯데장학재단 – 민화협 〈제4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 김민아
③ 2023 민화협 청년 평화기행 "함께 걷는 평화의 길" | 전병화
④ 민화협 독일 베를린지회 두 번째 세미나 "서베를린은 섬이었다" | 장은영

50
새로운 시선⑨ | 송현진
김정은 시대 '새 시대 농촌강령'의 등장

54
문화모니터
영화 속 북한 이야기 27 | 전영선
문학 속 통일미래 38 | 오태호
우표로 보는 남과 북 47 | 이상현

64
회원단체 소식 | 편집부

66
평화를 만나는 기행⑨ | 이영동
경기도 파주 평화기행 세 번째 이야기

70
궁금한 책 | 편집부

72
민화협 사서함 | 편집부

강만길 교수의 삶을 "축하" 한다

원희복 〈민족화해〉 편집위원·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

강만길 교수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몽매했던 우리에게 민족문제를 일깨워준 역사학자였다. 고인은 참담한 분단시대를 극복하려한 통일운동가였다. 고인은 비겁함에 숨죽이고 있는 우리에게 '깨어나라'며 죽비를 내리친 스승이었다. 고인은 선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실천한 선각자였다.

개인적으로 강만길 선생님은 2004년 〈민족일보사장 조용수 평전〉 추천사를 써준 인연이 있다. 선생은 추천사에서 "〈민족일보〉는 뒷날 군사 독재정권의 종언과 함께 창간되는 〈한겨레〉 신문의 전신이었다고도 할 것이다"면서 "이 책은 우리 평화통일운동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충실하게 증언해 주는 자료집 구실도 할 수 있다, 저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격려했다.

강만길 선생님에게 평화통일의 심지를 박히게 한 계기는 한국전쟁이다. 중학시절(경남 마산중학교) 학도의용대에 끌려 나가며 "왜 우리 민족끼리 총 들고 서로 죽여야 하나"라는 의문에서 비롯됐다고 고백했다. 그렇다. 이는 보통사람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이다. 왜 형제끼리 총을 겨눴으며, 부모와 자식이 만나지 못하며 70년 넘게 한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강만길 선생님의 관심사가 친일역사 청산에서 민족의 분단극복으로 옮겨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남북이 공감하는 역사가 곧 평화이고 통일이기 때문이리라. 고인의 연구업적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분단극복을 위해 민족주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정리한 〈한국민족운동사론〉(1985년),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1996년), 제자들과 공동집필한 〈통일지향 우리 민족해방운동사〉(2000년), 〈통일운동시대의 역사인식〉(2008년 증보판)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분단시대의 역사인식〉(1978년)이다. 이 책은 암울했던 당시, 젊은이에게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준 역작이다. 현실의 분단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철저히 분석해 비판하고, 그리고 극복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젊은이들의 게으름을 일깨우는 죽비와 같았다.

여기에 민족문제연구소를 창립해 고문으로 일하면서 친일인명사전편찬을 지도한 것이나(1991년), 〈월간 사회평론〉 발행인, 〈통일시론〉 편집인 겸 발행인(1999~2001년) 등의 언론 및 학술활동은 통일 열망과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고인은 20여 차례 남북을 오가며 통일운동의 현장을 지켰다. 1998년 민화협 설립 시에는 상임의장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활동이론과 실체를 모두 갖췄다는 말이다. 학계를 떠난 선생님은 후학을 지원하는 일에 매진했다.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통일언론을 격려했다. 청암언론상에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추서한 것도 고인이다.

말년에 고인은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을 설립해 〈내일을 여는 역사〉를 발행하면서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고인은 "늙을수록 욕심이 많아진다는데 이거야말로 금물"이라고 말했다. 적잖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변하고, 쓸데없이 노여워하고, 젊은이를 훈계하려 하고, 세속적 권력을 탐한다. 그래서 후학들에게 쓴 소리를 듣기도 한다. 그러나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와 민족과 평화통일의 소신을 지켰으며, 후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을 했다. 모든 일에서 떠나 말년을 바닷가에서 보내던 고인은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통일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 그는 속초 바닷가에서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기러기를 바라보며 부러워했을 것이다.

2000년 5월 26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기자회견에 함께 한 강만길 의장. (왼쪽에서 두 번째)

우리는 지금 강만길 선생님의 부음을 들으며, 엄청난 죄책감에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생님의 노력과 열정을 후학들이 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15선언 23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앞으로 진전하기는커녕 심각하게 역주행하고 있다. 오히려 통일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됐다. 그 근본적 잘못이 어디에 있는 것을 떠나 통일학을 배우겠다는 우리, 통일운동을 하겠다는 주변 단체, 통일이 민족적 사명임을 잊은 정치권 모두 소심했고 무능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나마 우리의 게으름과 무능함을 계속 질책해 주시길 바란다.

강만길 선생님은 한 톨의 티도 남기지 않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다. 비록 선생님의 심장은 여기서 멈추지만, 선생님의 학문적 성과와 통일에 대한 열정, 민족을 생각한 정신은 오히려 더욱 힘차게 뛸 것이다. 고인이 민족 통일운동사에 남긴 큰 족적은 분명 민족통일에 큰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의 추도글은 슬픔과 애도가 아닌 존경과 축하로 마무리하려 한다. 강만길 선생님의 용기 있고, 영광스런 삶은 축하받아 마땅하다.

정작 슬퍼해야 할 대상은 바로 비루하게 살아남아 있는 우리 자신이다.

강만길 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기억하며

“서로의 견해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통일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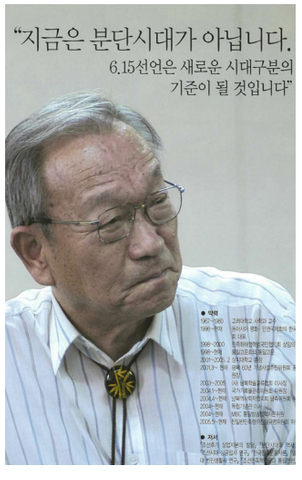
분단의 극복과 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서 왔던 강만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6월 23일 별세했다. 강만길 명예교수는 민화협 창립과 기틀 마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1998년 9월 초대 상임의장을 거쳐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약 1년간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다. 이후 민화협 고문으로 민간차원 남북교류를 개척하고 남남대화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민화협 활동 발자취를 찾아 그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한다. 생전 강만길 의장은 “역사가는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전망하기에 응당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론을 온몸으로 실천했다. 민화협 첫 남남대화를 금강산 가는 뱃길에서 시작했을 때, 강 의장은 “남남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서로의 견해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통일의 과정이며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만남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강만길 의장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 민화협은 강만길 의장이 남긴 남북통일에 대한 연구와 평화운동을 향한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민화협 발자취를 화보를 통해 살펴본다.

1. 1998년 9월 3일, 민화협 결성식과 초대 상임의장단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열린 민화협 결성식에서 초대 상임의장단이 선출됐다. 왼쪽부터 당시 강만길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강문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한광옥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박철언 자유민주연합 부총재, 오자복 전 국방부 장관, 이우정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장, 김상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상임대표.

2. 1999년 2월 20일~23일, 금강산 가는 뱃길에서 진행한 ‘남남대화’

민화협 결성 후 본격적인 남남대화 사업의 시작은 금강산 가는 뱃길에서 이뤄졌다. 3박 4일간 ‘금강호’에서 “새로운 세기 새로운 한반도”를 주제로, 당시 한광옥 초대 대표상임의장, 강만길 상임의장을 비롯한 민화협 임원과 한국자유총연맹,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등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사회 관계자와 남북문제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금강산 기행 중 당시 민화협 초대 상임의장이기도 한 이창복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의장과 강만길 상임의장이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3. 2005년 9월 7일 발행, <민족화해> 16호 권두 인터뷰

〈민족화해〉 16호에서는 ‘광복 60돌, 8·15민족대축전’ 특집으로, 강만길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자 민화협 고문 권두 인터뷰를 했다. 당시 강 위원장은 “지금은 분단시대가 아닙니다. 6·15선언은 새로운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두고, “한반도도 시야를 넓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 문제, 동아시아 전체의 공동체 형성과 같은 움직임 속에서 통일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4. 2005년 11월 16일, 제3회 민족화해상 개인부문 수상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3회 민족화해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개인부문으로 강만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수상했다. 그는 민족사학자이자 통일운동가로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결성하고 남북 역사학자 교류와 공동학술연구에 앞장섰다. 또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아 지난 역사를 바로 세우고 21세기 새로운 통일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일생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살아온 발자취가 높게 평가되었다.

량강도 삼수군 포성노동자구

34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조천현 PD

산다는 게 —— 산다는 게 별거냐

만나서 손 맞잡고
일없다 안부 전하고
말하면 들어주고 웃어주는 것 아니냐

내가 잘 사냐 네가 못 사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네가 있어 좋다고
만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서로 똑같아
따질 게 없는 환한 얼굴로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 아니냐

조천현은 조·중국경을 다니는 PD로 KBS 일요스페셜 〈현지르포, 두만강변 사람들〉, SBS 스페셜 〈5년의 기록, 압록강 이천리 사람들〉 등을 연출했다.

김 삼 열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독립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뜻은 하나된 조국

우리 사회의 민족운동과 통일운동 현장에는 항상 그가 있다. 2023년 2월 정전에서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발대식, 3월에 열린 올해 100주기가 된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진상규명을 위한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기자회견과 종로 탑골공원의 가치를 되찾는 〈탑골공원 성역화 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식 등 독립운동사(史)를 계승하고 남북통일을 실천하는 곳엔 김삼열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이 늘 함께했다. 그는 언제나 "독립운동 선열들이 후손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통일'"이라고 말한다. 일제강점기 북간도에서 이범윤, 홍범도 장군과 함께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김사범 선생의 손자이며, 1919년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몸 바친 김산 선생의 아들인, 김삼열 회장을 만나 현재의 남북관계와 통일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는 6월 9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독립유공자회관 3층 유족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대담 **김태우**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 · 정리 **김주헌** 1020통일공감기자단 · 사진 **김성헌** 객원작가

Q | 사회자

지난 2월 27일 제25차 민화협 정기 대의원 회의에서 상임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오랫동안 공동의장으로 민화협 활동을 해오셨는데 상임의장이 되신 소감을 여쭙습니다.

A 김삼열

민화협 상임의장이라는 과분한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민화협 공동의장으로 오래 활동했지만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13기 상임의장으로서 민화협과 함께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밑거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러기에 대내외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 의지 공고화, 미중 패권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질서의 대변화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이면서, 우리 민화협의 창립 정신입니다. 민화협의 기본 가치인 민족화해와 남남갈등 해소를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남과 북이 함께 만나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Q | 사회자

독립유공자유족회에 대한 소개와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A |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독립운동 선열의 유지를 받들어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1964년 6월 7일 설립된 국가보훈처 소속 사단법인입니다. 민족정기 선양사업,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유족회는 독립운동가 직계 후손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수권자로 제한된 광복회나 각 계열별 인원으로 구성된 여타 단체와는 달리, 독립유공자 직계 후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회원이 약 7만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족회가 그간 많은 일을 했지만 가장 자랑하고 싶

6월 6일 반민특위 터에서 시민모임 '독립'이 '근조 민족정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삼열 회장(왼쪽부터 네 번째)도 참여해 친일청산과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은 것이 있습니다. 1989년 아무도 친일파 청산에 관하여 거론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에 두 대의 가두방송 차량을 만들어 3년 동안 전국을 다섯 번 순회하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20만여 명의 국민 서명을 받으면서 민족정기 확립을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14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187명의 서명을 받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지만 무산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15대 국회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등 뜻있는 단체들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결국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일제에 아부하며 독립운동가들을 체포·구금하고 학살하는 등 나라와 민족을 송두리째 배반한 반민족행위자들을 청산하고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그러한 역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해체된 지 55년 만에 정부 주도로 일제 치하 친일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유족회에서는 1987년부터 매월 셋째 화요일 '월례 민족 희망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을 기점으로 235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현시점에서 민족발전의 걸림돌은 무엇이며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열들은 어떠한 정신으로 독립투쟁을 전개했으며, 1945년 해방 전후 어떻게 나라를 세웠고 분단이 되었는지에 관해 공부하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럼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은 유족회 차원에서 국민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며, 주요한 특강 내용들은 책으로 출간하기도 합니다. 우리 유족회는 앞으로도 하나뿐인 목숨마저 초개와 같이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선열들의 살신성인 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편 광복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해 결국 친일 기득권 세력이 사회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독립운동'은 우리 사회 내 오랫동안 숨겨야만 하는 역사적 사실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은 나라를 되찾은 위대한 성취를 숨긴 채 죄인 아닌 죄인으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유족회는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도록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매달 독립유공자 유족 중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유가족들에게 생계비 지원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유족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물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청산의 길을 시작하다

Q | 사회자

지난 6월 5일, 대한민국 보훈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온 국가보훈청이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습니다. 그만큼 국가보훈부의 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큽니다. 국가보훈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A | 김삼열

참 다행입니다. 오랫동안 유족회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 보훈단체들이 바라왔던 일이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것이 적절한 시기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가보훈처는 보훈 보상대상자를 주로 생존한 본인과 유족 중 1인으로 선정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의 경우 백 년 전 독립운동을 하셨기에, 독립운동가 본인은 현재 대다수 생존해 계시지 않거나, 사후 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 유족이 공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교육지원금으로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3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상황에서 뒤늦게 공훈을 받은 유가족의 경우 3대손들이 연세가 많아 보훈 보상은 물론 교육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육지원금 대상자로는 보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4대손과 5대손, 즉 현재의 증손자나 고손자들이 많습니다.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의 경우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국가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단체들의 애국애족 운동을 깊이 살피고 적극 협조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유족회에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상황을 살펴 지원책을 보다 확대 마련해주거나, 어려울 경우 유족회가 지원하는 사업에 호의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 사회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습니다. 현 정부는 대북정책의 주요 골자로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우리 당국의 맞대응으로 남북 간 대치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A | 김삼열

남북관계는 지금 굉장히 잘못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면 북한과 직접 만나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서로 만나 긴밀한 협의를 하고, 그 만남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주변 강대국들과 등거리외교를 펼쳐야합니다. 북한이 도발한다고 해서 그 제재 수위와 군사적 대치 상황만 높이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처럼 강 대 강으로만 접근한다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으로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한 위대한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조선 말 부패한 수구세력과 외세에 항거하고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기 대한독립을 외쳤던 3·1만세혁명, 군사정부의 독재를 막고자 일어섰던 5·18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그리고 2016년 반헌법적 국정농단을 바로잡기 위한 촛불혁명까지 우리 민족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 역사의 물꼬를 바꿔왔습니다.

남북관계사(史)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은 지금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직접 만나서 민족의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7·4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노

무현 정부의 10·4선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남북합의서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남과 북의 모든 국민들의 통일과 평화를 향한 염원 속에서, 또 극심한 남북 적대적 대치라는 위기 속에서, 정말 옥동자처럼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반만년 문화민족의 저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는 역사의 쾌거였습니다.

우리는 역대 남북합의서들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 합의서에 남북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과 미래 청사진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 합의서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남과 북이 직접 만나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정리된 사안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길에 주변 강대국들을 참여시키는데 있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남북대화 재개로 긴장 완화 나서야

Q | 사회자

올해 초부터 한일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과 5월 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으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우리의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A | 김삼열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는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35년간 일본이 한국을 식민 통치하면서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본인들의 침략전쟁을 위해 징병, 징용, 노무자, 정신대 등 강제로 우리 민족 600만 명을 끌고 가 200만 명을 희생케 하였습니다. 한국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 동남아 등 침략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자행한 731부대, 중국 난징대학살 등 수없이 많은 비인도적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솔한 사죄와 반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략의 상징과도 같은 우리 땅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인정과 반성은 사실 일본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상대국가 국민들이 갖는 국가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미래'를 강조한다 한들,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과 없이 어떻게 상대국가 국민들의 외교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더 당당하게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잘못한 일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어느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일본에게 큰 배상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죄를 바라는 것인데, 오늘까지 일본은 일언반구 없이 우리 민족을 우롱하고 능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가의 고결한 희생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독립운동 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Q | 사회자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청년세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랜 기간 적대적 남북관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다가, 2018년 짧게나마 화해와 평화의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다시 적대적 대치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국민들의 '통일'과 '민족'에 대한 거부감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남남갈등 해소와 청년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민화협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A | 김삼열

민화협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이자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과제입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불경기가 곧 닥칠 거라는 전망 속에, 저출산과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일이 곧 경제이고, 통일이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답이라는 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합치면 약 8천만 정도 됩니다. 대게 8천만 정도 인구를 갖추면 내수로 경제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창의성은 세계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북한의 노동력과 근면성에 더한다면 경제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화해와 협력도 끌어낼 수 있는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에게 통일과 평화의 경험을 심어주는 민화협 활동이 더욱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역사의식을 높여야 하고 파주 임진각, 판문점과 JSA 공동경비구역, 경의선 철길 등 분단과 평화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청년들의 가슴 속에 통일의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훗날 대한민국 여러 분야의 사회적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통일의 꿈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또한 통일교육은 오천 년 우리 민족의 역사에 깃든 홍익인간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 되는 한반도를 위해

Q | 사회자

마지막으로 〈민족화해〉 독자들과 통일운동 후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A | 김삼열

독립운동 선열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바라는 과업은 바로 통일입니다. 선열들이 되찾고자 했던 조국은 분단되지 않은 하나된 나라였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 협력 그리고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합니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입니다. 통일운동 선배로서 아직까지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온 것에 가슴 아픕니다.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70년이 흘러오면서 남과 북의 무기 체제는 고도화, 현대화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될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화력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의 용병이 되어 망국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종전과 평화 체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확산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민화협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로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민화협의 가치를 잘 지켜주고 버텨주길 바랍니다. 민화협은 그간 여와 야, 보수·진보·중도를 아우르며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통일의 의지를 모아왔습니다. 언젠가 다시 남북 평화의 시기가 찾아올 것이고, 민화협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더 함께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저도 물심양면 도울 것이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어 슬기롭게 극복해나갑시다.

01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문제와 세계질서의 변화 ①

글 **유재영**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 사진 **김성헌** 객원작가

국제사회의 행동과 북한 내부 사정 간 역학관계 직시해야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문제와 세계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북한연구학회, 한국세계지역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방부, 이화여자대학교, 민화협이 후원하여 개최된 학술회의는 총 3일에 걸쳐 44개 패널의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민족화해〉는 개막식을 비롯해 주요 섹션의 발표 및 토론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한국국제정치학회 박인휘 회장.

전영선 북한연구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6월 21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이삼봉홀에서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문제와 세계질서의 변화" 학술회의의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박인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뜻깊은 학술행사를 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어 기쁘고 금년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어 통일에 관한 심층적 논의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한연구학회 전영선 회장도 통일 논의의 현주소 그리고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진단할 논의가 학술행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으로 권영세 통일부장관의 환영사가 있었다. 권 장관은 올해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국전쟁 이후 우리사회가 거쳐 간 여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그리고 문화적 변화가 통일 현실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화협 손명원 대표상임의장,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지난 4월 21일 민화협의 신임 대표로 선출된 손명원 대표상임의장은 민화협이 통일에 대한 국민과 민족의 염원을 모으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김은미 총장은 학술회의를 통해 한반도 통일문제 해법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이 공유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북제재의 적절성 항상 고민해야

북한 전문가 헤이즐 스미스(Hazel Smith) 교수의 기조 강연이 이어졌다. 헤이즐 스미스 교수는 과거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북한사무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그녀는 북한 식량 상황의 심각성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하였고,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의견도 개진한 바 있다. 현재는 영국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원(SOAS) 한국연구센터에 소속되어 있다. 헤이즐 스미스 교수는 이날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녀는 우선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하여 북한 내 식량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현재 영양실조 상태인 영아들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비록 대북제재가 원칙적으론 인도적 식량 지원을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식품 생산을 위한 각종 장비와 비품 수입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 지적하였다.

스미스 교수는 향후 북한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국제사회의 조치(action)와 북한 내부(domestic) 사정 간 역학관계를 직시할 것을 강조했다. "제재조치의 비용이 선행 동기나 다른 행위자가 책임이 있는 다른 선행 사건에 원인이 있더라도 제재를 가하는 국가는 그 국가가 부과한 제재의 손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갖는다는 지적이었다. 즉, 무리한 제재로 인해 정치적 책임(responsibility)이 없는 이들까지 고통받는 게 우려되고, 이 또한 북핵만큼이나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02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문제와 세계질서의 변화 ②

글 **유재영**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 사진 **김성헌** 객원작가

미래지향적 통일담론 형성

6월 21일 이화여자대학교 ECC 이삼봉홀에서 '미래지향적 통일담론 형성'을 주제로 한 패널 세션이 개최되었다. 해당 세션에는 IBK기업은행 정유석 연구위원, 인하대학교 허지영 연구교수, 그리고 통일연구원 박주화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고, 성균관대학교 김성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국민대학교 임철희 교수, 한국수출입은행 이경희 책임연구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심승우 교수가 참여하였다.

정유석 위원은 '담대한 구상과 신통일 미래구상'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이 먼저 다루어졌고, 이후 정책 개선점에 관한 시론으로 발표는 마무리되었다. 정 위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골자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기조로 둔 정책. 둘째,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조건 제시. 셋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의 경제, 정치, 군사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행하는 것을 촉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구상 혹은 방침에서는 북한의 대화 복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대북 협상 환경 변화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것을 강조한다.

정 위원은 이러한 대북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면서, 앞으로 해당 정책방침이 고수될 한반도 대내외 상황은 대략 네 가지 이슈와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1)코로나 이후 세계질서 재편, 2)미중 패권 경쟁, 3)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4)통일 문제에서의 세대 격차 등이다. 특히 강조된 건 네 번째 이슈였다. 대한민국 청년층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 위원이 소개한 설문조사에서,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 라고 답한 청년층이 절반을 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년층이 갖는 실용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한다. 즉, 민족적 당위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통일 미래 구상'은 이 같은 시대 및 세대 변화를 토대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전 통일 및 대북정책들에서 제시되어온 '남북 교류 활성화 사업' 역시 중요하고 장려되어야 한다고 그 역시 강조하였다. 단, 현 대북정책이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과 그것이 추진되는 대내외 상황은 항상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허지영 교수의 '중견국 국가전략으로서 평화통일: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구축'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허지영 교수는 해당 발표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진전을 가로막은 원인을 분석했다.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론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오늘날 통일에 있어 가시적 성과가 부재한 이유로는, 평화통일 담론이 분절화된 것과 비연속적인 대북정책을 꼽을 수 있다. 통일 담론에서의 소위 일반화와 모순은 치명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단편적인 통일 인식은 통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모순은 통일정책 추진 시 동력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어서다. 예컨대, 그간 평화통일체제 구축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이를 단순화시켜,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통일에 대한 옹호가 개인한테 부담스러워진다. 아울러 '통일'과 '평화'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 긴장은 어떤 통일원칙과 정책을 고수할지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진다. 즉, 통일 없이도 평화를 달성하는 게 가능할 거란 생각과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발상은, 기본적으로 통일노선을 양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일관된 통일정책의 강구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허 교수는 '피스레짐'과 '피스시스템'에 기반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사회적 정의 혹은 인식의 재정립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주화 위원이 '통일비전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박주화 위원은 현재 어떤 현실 속에서 이른바 '통일비전'이 강구되는지부터 살펴봤다. 박주화 위원도 통일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지 못한 청(소)년층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를 순전히 국민의 무관심으로 치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정확히 "국민의 무관심"인지 아니면 "국가의 무관심"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국가가 국민의 보편적 생각과 공감대를 파악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왔나? 오히려 그간 통일에 있어서 국민의 공감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오지 않았는가? 이제는 통일비전이 정확히 누구의 비전인지를 재확인하고, 미래상이 충분히 반영되어 통일을 위한 앞으로의 10~30년의 노력이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박 위원은 강조했다.

03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문제와 세계질서의 변화 ③

글 **이승현** 〈통일뉴스〉 기자 | 사진 **김성헌** 객원작가

민간단체 남북협력사업의 교훈, 성과, 전망

6월 21일 오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복합 캠퍼스(ECC)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중 '민간단체 남북협력사업의 교훈, 성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세션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 년간 남북 인도지원사업을 해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어깨동무,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 만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핵심 관계자와 참가자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먼저 "25년 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동이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여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듯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우리 민간단체들의 힘으로 돌파해 낼 수 있도록 '낙관적 의지'를 가지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자"며 격려를 겸한 각오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그동안 민간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활동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공동체 회복, 한반도 평화 형성에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이 쇠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민족적 포용성에 큰 장애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은 다수 국민이 참여한 모금운동의 형식을 통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통일운동'이라는 의의를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인해 민관 거버넌스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간사업에도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분단사에서 보기 드문 민족화해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 온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북측이 남측 민간에 대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이유로 예전과 같이 중요한 협력파트너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지적한 것이다.

북측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측 민간과 교류·협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협력사업을 체제에 대한 도전과 불안요소로 보는 이중적 잣대가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각 분야의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달성 가능하다며, "정치·군사적 근본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교류협력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남북관계의 하나의 상징이었던 '인도적 대북지원'이란 패러다임은 이제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종언을 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대북지원 활동이 그간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과 전혀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며, 물자지원과 인적교류라는 상호협력의 기본 틀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회장은 향후 대북지원활동은 △남북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평화공존을 증대시키는 포괄적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실행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본격적 추진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국제사회가 추진할 발전목표로 설정한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의제에 주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제규범을 적용한 남북협력사업 가능성에 대해 발표한 김태균 서울대 교수는 남북 양자관계 재구축은 중장기적 과제로 두고 단기적으로는 대북지원 아닌 정치와 무관한 별개의 트랙을 국제기구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단기 처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은 이미 2008년부터 남북교류협력은 장기간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 정상회담 이후 해빙을 기대하다 이듬해 하노이노딜 이후 다시 얼어붙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향후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고 하면서도, 북이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VNR(자발적국가검토보고서)에 주목해 상호협의를 제안하는 등 실현 가능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과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도 토론자로 참가해 남북협력사업 재개를 위한 논의에 함께 했다.

04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문제와 세계질서의 변화 ④

글·사진 **유재영**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통일네트워크 구축과 통일공공외교

6월 22일 이화여자대학교 ECC 제4회의실에서 "통일네트워크 구축과 통일공공외교"를 주제로 한 패널 세션이 개최되었다. 이날 세션의 진행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국민대학교 여현철 교수,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전병길 사무국장, 그리고 한라대학교 정대진 교수 순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여현철 교수는 '지역사회의 통일교육과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고찰'에 관해 발표하였다. 여현철 교수는 현 시점에서 기존 통일교육이 갖는 한계점부터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경계심이 존재하며,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계나 선입견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는 현실에서, 지금의 통일교육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맞춤형 체험학습을 비롯해 통일교육의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과 수정과 보완이 추진되려면, 그리고 교육 자체가 지금보다 더 보급되기 위해선, 관련 교육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즉,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개선할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전병길 사무국장은 '통일준비를 위한 글로벌협력: 민관학 네트워크의 현황과 과제'에 관해 발표하였다. 통일문제에 앞서, 그는 '공공외교'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갔다. 대상국 국민의 마음은 얻는 것이 공공외교이며, 공공외교의 주체는 최근 '정부 행위자'에서 기업인,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통일문제에서도 역시 공공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제는 공공외교의 행위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확대되었지만,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는 정부만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배경으로,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주도할 '협력 모델' 및 '추진체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전병길 사무국장은 그간 자신이 속한 통일과나눔에서 추진해온 글로벌 협력 모델을 예시로 들면서, 민간 참여형 통일외교가 갖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통일과나눔은 해외 주요 싱크탱크와 관계를 쌓았고, 이들과 함께 북한 연구를 지원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중들의 인식을 환기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공외교의 방향은

마지막으로 정대진 교수의 '남북관계 전화기의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그에 의하면 남북관계는 국제정세에 따라 '현상유지' 혹은 '현상변화' 기조를 따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금 시점에선 현상유지가 우선시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공공외교가 통일문제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외교법을 2016년에 제정한 바 있다. 즉,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해 외교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이를 실현한 제도는 갖춘 상태이다. 현시점에서 북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만 다룰 경우, 관계국들의 현지 언론과 일반시민이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외교력 부족 외에도, 정부가 직접 나섰을 때 따른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지 언론과 일반시민들이 대북 문제에 있어, 한국 기조에 동조할 수 있으려면 공공외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 한국의 공공외교가 법제화는 되었음에도 보완되어야 할 지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공공외교에 대한 컨트롤 타워 수립, 현지 언론과 직접 접촉할 창구 설립, 그리고 자국 중심성을 초월하려는 시도 등이 시급하다고 정 교수는 지적하였다.

05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문제와 세계질서의 변화 ⑤

글·사진 **편집부**

한반도 통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6월 23일 〈2023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3일차 마지막 세션에서 특별기획 토론이 준비됐다. 통일부와 이화여대 통일선도대학사업단이 공동 기획한 "한반도 통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제의 라운드 토론이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로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제68대 차기 국제정치학회장인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 현 북한연구학회 회장인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현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인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어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세부 주제는 3부분으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적극 참여하여 단계적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룰 경우,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지속하나 여러 요인으로 체제 붕괴가 이뤄졌을 경우,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남북 통합을 위한 우리의 준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Q | '담대한 구상'에 따라 남북 합의에 의한 단계적 통일을 할 경우

A | 전재성

담대한 구상과 통일방안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 조치와 이후 조치들을 담고 있다. 통일로 가려면 비핵화 단계에 있을 남북 간 교류협력 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조치로 평화협정을 넘어 남북이 통일을 위한 두 정치체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마련하여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상당한 화해와 협력 단계가 이뤄졌을 것이고, 남북 간 정치적 평화협정이나 국제적인 평화체제의 지지기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북·중·러 연대를 통해 국제적으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통일방안을 따른다는 보장이 없다. 담대한 구상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방안과의 접합성, 즉 비핵화 이후 북한 발전 방안과 남북 당국 간 관계 설정, 나아가 통일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A | 주재우

비핵화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북미관계에서 지난 30년간 비핵화 논의과정을 보면 두 가지 경로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이 선호하는 살라미 전략, 즉 단계적 접근이며,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같은 패키지 전략이 있다. 비핵화는 북미 간 양자 차원에서 시작되다, 결국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다자 차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비핵화 청사진이 단계별 접근전략이든 패키지 전략이든 주변국이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예로 패키지 전략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북한 반경 300km내 핵무기 배치 불능 및 각종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중국 산동 지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지역이 포함된다.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북한과 중국 모두 반응이 없다. 최근 비핵화 문제를 두고 중국이 입장 변화를 보였는데, 지난 3월 중러 공동성명에서 과거 두 나라가 견지했던 쌍중단과 쌍궤병궤에서 쌍중단을 폐기한 것이다. 미중 간 협력의 공통과제 중 하나가 사라진 시점에서 새로운 교집합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

Q | 여러 요인으로 북한이 붕괴할 경우

A | 마상윤

북한의 내구성은 여러 차례 증명된 측면이 있다.

붕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북한은 살아남았다. 취약한 시스템이라 분석되지만 정권을 유지하는 데 나름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에 붕괴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만 대비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주류학계에서는 레이건 행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소련이 미국과 군비경쟁에 대응하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고, 결국 체제 붕괴를 가속화시켰다는 중론이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다른 의견을 보여준다. 레이건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마지막 해 소련에게 진지하게 군축을 제의했고, 이에 고르바쵸프가 호응하면서 미소 간 군축회담이 열렸다. 당시 소련은 내부 개혁에 집중하기 위해 대외적 긴장 환경을 완화하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체제 붕괴가 일어나면서 결국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의 대소련 최대압박과 진지한 대화 제스처가 결부되면서 소련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북한이 소련의 사례를 그대로 따를지, 학습효과로 최대한 피하려 할지 알 수 없지만, 대북정책과 그 전략에서 해당 연구 사례를 염두할 필요는 있다.

A | 조양현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북한의 붕괴다. 이에 중국이 개입하고, 붕괴 과정에서 핵물질 유출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 일본은 아마 한국 주도의 질서 있는 체제통합을 위해 미국과 협력해 대응하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

그렇다면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원할까.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반만 정답이다. 일본이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은 '불투명성' 때문이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통일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군사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통일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불투명성도 있다. 통일된 한반도는 어떠한 이념 체제를 가진 국가가 될 것인가.

일본 내에서는 '3N의 통일된 한국'은 중국보다도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N이란 Nuclear, National risk, Neutral로, 핵무장한 한반도, 반일의 정체성, 중국의 개입 강화를 말한다. 2천여 년의 동북아 역사에서 일본은 안보의 큰 위협을 한반도라고 여겼다. 통일된 한반도가 일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공동번영의 비전을 공유하는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

A | 전영선

정치적으로 통일이 미치는 영향이 한반도에 큰 지각을 일으킨다면, 사회문화는 그 지각변동으로 일어난 쓰나미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남북통합 이슈로, 의사소통 부분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통일이 되면 누구의 말로 판단기준을 삼을 것인가이다. 주로 우리는 통일 이후 통합과정을 우리 기준과 우리 관점으로 상정하여 연구한다. 하지만 통합과정에서는 상대 입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흔히 북한을 두고 지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만든다고 보지만, 북한 주민들은 오랜 관성에 따른 사유체계로 자신들의 가치관과 배치되는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북한 지도층은 물론 주민들도 통합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면 스토리, 즉 서사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 유지와 발전, 번영의 미래 등 단단한 국가 서사를 갖고 있다. 체제 붕괴의 인과, 정책 실패, 국제 정세 흐름 등을 설명하는 서사가 확실해야만, 붕괴 이후의 관리 주체가 어떤 자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생긴다. 붕괴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스토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Q | 통일 이후 남북 통합과정

A | 박원곤

통일 이후 한반도 상황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한미동맹의 지속여부가 그렇다. 개인적으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포함한 한미동맹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일한국은 세계 국력 차원에서 세력균형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역내 주변 국가들의 견제가 훨씬 심해질 것이다. 또 통일 이후에는 북한 지역 재건을 위해 우리 국가 재정 대부분이 투입될 것이다. 다양한 위협과 불안 요인에 치밀하게 준비하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결국 국경을 맞대지 않고 영토적 야심이 없으면서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있는 국가를 찾아야 하는데, 바로 미국이다.

앞서 통일 이후 서사의 문제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 김정은 체제가 그리는 서사는 굉장히 직접적이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핵개발을 보다 더 완성한 것이 김정은이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사가 지난 몇 년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예전과 다르다. 외부 사조에 대한 유입과 접촉이 많은 장마당 세대가 그렇다. 사상 통제의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서사에 의한 통합은 예전보다 수월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북한 주민을 2등 국민 취급하는 것이다.

A | 김상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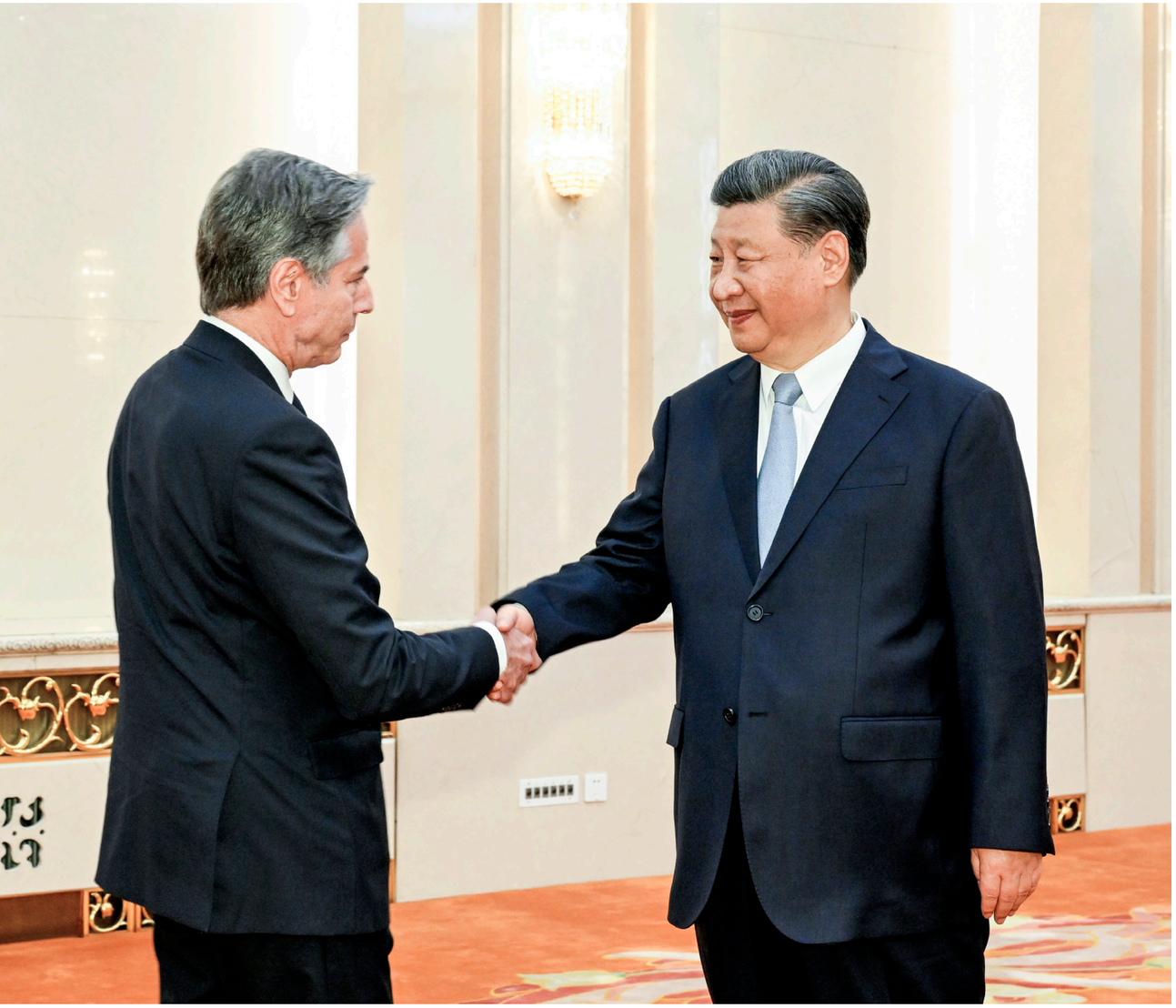
지난 코로나19 국면에서 지정학적 지평 너머 신흥 안보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 안보 이슈 아래 부수적이라 여겼던 신흥 안보 이슈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준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당하는 경우에는 그 후과가 클 수도 있다. 자칫 구조의 고착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사이버 안보가 있다. 최근 미중 간 디지털 분야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분리와 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통일준비 상황과 향후 미칠 후과는 무엇인가. 현재 남북 간 디지털 교류는 전무한 상황이자, 미국 주도의 디지털 세상에 북한이 편입되어 자신의 생태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4차 산업혁명에 손 놓고 있지는 않고 있다. 아마 중국 기업들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중 간 사이가 좋아 플랫폼 호환이 되면 별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은 미국 주도형 사이버 플랫폼에, 북한은 중국 주도형 사이버 플랫폼에 오랜 기간 놓여지면서, 한반도 비핵화 완성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평화는 이뤘는데 사이버 분야에서는 분단이 계속되는 것이다. 사이버 세상은 '표준', 즉 '호환성'의 게임이다. 하나의 표준이 장악하면 빈익빈 부익부 양상으로 전개된다. 오프라인 통일만큼이나 사이버 공간의 통일은 굉장히 힘들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통일의 상이 전통적인 평화의 시각에 머물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 세대 이후에는 AI와 4차 산업혁명이 상당 부분 우리 생활권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반영된 통일 모습이 필요하다. 새로운 신흥 안보 이슈를 포함한 주변국 간의 거버넌스도 만들어 내는 '동북아신흥평화구상', '동북아사이버평화구상'등의 목표가 필요한 때이다.

한중 수교 30년 … 디커플링과 퇴행

임상범 SBS 보도본부 D탐사제작부 부장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6월 19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시 주석은 "양국 간의 공통 이익을 중시해야 하며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며 중미의 평화 공존과 우호 협력을 강조했다. ⓒ연합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선린우호협력 관계'에서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거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까지 격상되어왔다. 천안문사건으로 주춤해진 개혁개방을 되살릴 조력자를 구하던 중국이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시장 확대를 모색하던 한국 모두, 서로가 절실했다. '사회주의 혈맹', '자유반공 우방'이라며 챙겨 온 북한과 대만으로부터 배신자 소리 듣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수교 후 30년 세월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수교 초기 밀월 기간을 거쳐 무역 갈등, 역사 갈등이 하나둘 불거졌고, 북핵 해법과 대북제재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경제는 별개라는 실리에 입각한 상호 인식하에 교역과 교류만큼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사드배치와 사드보복을 주고받으며 양국 관계는 냉각기로 접어들었고 본격적인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블록에 사실상 참여하면서 한중 간 디커플링은 가속화, 고착화되고 있다. 양국 간 교역 규모와 인적교류는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고, 그때그때 국익만 있을 뿐이라지만 최근 한중관계의 삐걱거림은 안타까운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시진핑 방한은 물 건너갔나?

한중 수교 30주년이었던 지난해, 양국은 정부 차원에서 별다른 기념행사를 갖지 않았고, 두 나라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수교 이래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단독회담과 다양한 다자무대를 포함해 85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 게 가장 최근이다. 지난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지만 중국은 2014년 시 주석의 방한을 끝으로 10년 가까이 최고지도자가 한국을 찾지 않았다.

코로나19라는 핑계도 사라졌다. 이번엔 중국 측에서 한국에 올 차례라며 우리 정부가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확답을 피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 틀을 지렛대 삼아 더 이상 중국을 상대로 저자세 외교를 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국내외에 선명성을 과시한 셈이지만, 시 주석 입장에선 이런 한국의 행보가 달갑지 않은데다 한국 내 반중 정서도 강한 상황에서 굳이 남 좋은 일 하고 싶지 않다고 판단했음직하다. 서로 셈법이 판이하게 다른데 힘겨루기만 계속된다면 시 주석의 방한은 물 건너간 것으로 봐도 무리가 아닐 듯하다.

위안스카이 후예 자처한 중국대사들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팅을 하고 있다.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원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와중에 터진 주한 중국대사 싱하이밍(邢海明)의 이 발언은 분명 선을 넘었다. 싱 대사는 한국 근무 때마다 번번이 외교 결례를 저질렀던 인물이다. 싱 대사를 비롯한 역대 중국대사 8명의 면면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주재국, 상대국을 물어뜯는 거친 전장의 늑대, 즉 전랑(戰狼)들이다.

마오쩌둥과 김일성 회담 통역도 했던 장팅옌 초대 대사는 부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에 대해 질문받자 "유감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2대 대사 우다웨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가 말갈족의 후예라며 한국을 얕잡아 보려는 자세를 보였고 달라이 라마의 방한 얘기가 나오자 단교 가능성을 들먹였다. 3대 대사 리빈은 독립을 주장하는 천수이볜 대만 총통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한국 국회의원들을 기억해 두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이때 협박 전화를 걸었던 당시 정무참사관이 바로 싱하이밍이었다.

4대 대사 닝푸쿠이는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 때 발생한 중국인 유학생 폭력시위의 배후로 지목됐고, 5대 대사 청융화는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 인수를 적극 지원했지만 결국 투자 약속을 저버렸고 기술탈취 논란까지 일으켰다. 6대 대사 장신썬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 북한 편을 들려다 비판받았고 외교부나 통일부로 불려 다닐 때 수행했던 당시 공사참사관이 우리 장관에게 "너무 하는 거 아니냐"며 거칠게 항의했는데 그게 또 싱하이밍이었다. 7대 추궈훙 대사는 사드 갈등 국면에서 협상이나 수습은커녕 전적으로 한국 책임이라는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역대 중국대사들이 보여 온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은 구한말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위안스카이(袁世凱)를 떠오르게 한다. 140년 전 임오군란 때 조선에 들어온 위안스카이는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해 갔고, 그 뒤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사사건건 간섭했다. 당시 20대 청년이었는데 말 타고 궁궐을 제집 안방처럼 드나들었고, 조정의 행사 때마다 최고 상석을 고집했다. 참다못한 고종이 러시아에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왕을 바꿔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았다.

그러나 위안스카이 망령은 어디까지나 과거사일 뿐이다. 요즘같이 만국이 평등한 국제사회에서, 특히나 우리의 객관적 국력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속국 대하듯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싱하이밍 대사의 언사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과 항의의 뜻을 밝히자 중국 정부도 추가 도발을 자제한 채 유야무야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뒤돌아보니 중국 앞에 우리만?

이 시점에서 우리의 대중국 외교의 득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보다 전략적 경쟁에 치중하는 동안 우리는 나름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양자택일의 막다른 골목을 피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전략적 선명성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어 보인다. 국익의 극대화라는 기준에서 일련의 친미경사 외교의 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미국이 주도해 온 이른바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의 최전선에 혹시나 우리만 외롭게 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월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만났고 양측이 미중 정상회담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중 사이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 호주 등도 속속 대중국 정책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건 가능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는 결론에 이르자 태세 전환을 한 것이다. 다들 악수하고 돌아서는데 홀로 중국과 맞서다 뒤돌아보니 우리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드 갈등으로 앙금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불편하게 여겨온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우리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공을 들이는 와중에 중국이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

지지 철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코로나19 해제 후 60여 개국에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한국은 제외하거나 여객선 운송 정상화도 보류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정부 간, 비정부 간 교류도 보이콧 분위기다. 중국의 옹졸함을 탓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에게 전략적인 허점은 없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히 할 만한 말이었지만 한중 수교 이래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는 한 문장을 더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질색하는 대만 사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빠짐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 한중 간의 관계회복, 그리고 시 주석의 방한도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전략적 유연성과 상인의 마인드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나가야 하는 한국은 미중 간의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 경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지정학적인 숙명이며 한국의 외교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전략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그 전략이라는 게 누구 편도 들지 않는 모호성이나 저자세를 뜻하는 건 아니다. '가치동맹'도 좋고 '자존외교'도 좋지만 선명한 선 긋기와 외줄타기가 능사는 아니다. 비정한 외교무대에선 국익 셈법에 따라 언제든 태세 전환이 가능함을 끊임없이 내비치며 그때그때 상대로부터 받아낼 것은 확실히 받아내는 철저한 상인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전략적 유연성이며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지혜다.

임상범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중국의 에너지정책 연구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SBS 공채로 입사해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국제부 등을 거쳐 베이징 주재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 주요 현안을 탐사보도하고 있다.

의열단 부장(副將), 이종암을 기억하며

김병기 희산김승학선생기념사업회 이사

1926년 12월 19일 동아일보 기사에 실린 이종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의열단은 일관되게 민족혁명 노선을 추구하면서 대일항쟁기 우리 항일독립운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였다. 스스로를 희생하며 의열투쟁을 벌인 인물가운데 의열단 부장(副將)으로 불렸던 이종암(1896~1930)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흔히 의열단이라면 단백(團伯)으로 활동하였던 김원봉(1898~1958)을 중심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열단 단원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건 항일투쟁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모두가 역사의 주역이라 할 수 있겠다.

이종암의 본명은 이종순(李鍾淳)으로 종암(鍾岩, 종바우)은 아명이다. 일제의 자료에는 양건호(梁健浩)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이외에도 당시 혁명가들이 그랬듯이 많은 이명을 가지고 있었다. 대구와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1914년 대구은행에 들어갔다. 은행 출납계에서 일하던 중 밀양출신으로 만주의 지린, 펑톈 등지를 왕래하며 독립운동을 하던 김대지, 구영필과 만나 의기투합하였다. 1917년 12월 은행 금고에서 1만 500원을 인출하여 상하이를 거쳐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가 출납주임으로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918년 4월 만주 펑톈으로 건너간 이종암은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했다. 이듬해 국내에서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직접 독립운동에 참가하기 위해 무관학교를 중퇴하고 김원봉, 이성우, 신철휴, 한봉인 등과 함께 그해 11월 10일 의열단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상하이로 가서 구국모험단의 단장 김성근에게 폭탄제조법을 배우고 지린으로 돌아와 동지들에게 전수하였다.

이들 동지들에 의해 부산경찰서 폭탄사건(일명 박재혁 사건, 1920.9.14), 밀양경찰서 폭탄사건(일명 최수봉 사건, 1920.12.27), 조선총독부 폭탄사건(일명 김익상 사건, 1921.9.12), 상하이 황포탄 사건(일명 다나카 대장 저격사건, 1922.3.28)이 연이어 일어났다. 의열단의 이름으로 일제 수뇌를 저격하고, 주요기관을 파괴한 것이다. 일제는 의열단원이 국내로 잠입했다는 정보만 접해도 전국에 초비상령을 내리고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며 이들의 무장투쟁을 막기에 전전긍긍했다.

상하이 황포탄 사건의 주역

이 가운데 '상하이 황포탄 사건'에는 오성륜, 김익상과 함께 이종암이 직접 참가하였다. 1922년 3월 초순 상하이 프랑스조계 중국인 이발소 2층에 모인 동지들은 김원봉이 가져온 정보에 귀를 기울였다. 3월 20일경 일본군 중에서도 악명 높은 다나카(田中義一)대장이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하이에 들른다는 정보였다.

다나카 대장을 처단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누가 맡느냐,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놓고 서로 자기가 해치우겠다고 야단이었다. 그 중에서도 오성륜과 김익상이 적극적이었다. 이종암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결국 오성륜은 다나카가 배에서 내려 부두로 걸어 나올 때, 김익상은 부두에서 나와 자동차에 오르려 할 때, 그리고 이종암은 차가 출발할 때 폭탄을 던지기로 했다. 오성륜이나 김익상 모두 사격에는 내노라하는 인물들이었다.

1922년 3월 28일 오후 다나카를 태운 기선이 황포탄에 닿았을 때 부두는 환영 나온 인파로 가득 찼다. 삼엄한 일본 헌병들의 경계망을 뚫고 먼저 오성륜이 사다리를 내려오는 다나카를 쏘았다. 그러나 총알은 다나카 앞으로 밀치고 나오던 서양 여인의 가슴에 맞았다. 놀란 다나카가 사람 틈을 헤치며 자동차를 향해 뛰어갔다. 제2선을 맡은 김익상이 군중들을 헤치고 다나카의 뒤를 따라 연속하여 두 방을 쏘았다. 총알은 다나카의 모자를 정확하게 뚫고 지나갔다. 김익상은 곧 폭탄을 꺼내 힘껏 내어던졌다. 그러나 불발이었다. 다나카를 실은 자동차는 달리기 시작했고, 군중 가운데 있던 이종암이 곧 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이것도 불발이었다. 마침 그곳에 섰던 외국인 병사가 이를 발로 차서 바다로 떨어뜨렸다. 이종암은 입었던 옷을 급히 벗어 던지고 군중 속으로 몸을 피했으나 나머지 두 사람은 일경의 추격을 당한 끝에 체포되고 말았다. 약산은 당시 오성륜 등이 거사를 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도피할 수 있도록 동지들과 함께 부두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혼란한 와중에 결국 자전거는 건네지 못하고 말았다.

일제 간담 서늘케 한 의열단 부장

이종암이 다시 국내 신문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은 1926년 11월 하순 즈음이다. 경북경찰부에 체포된 의열단원 양건호가 극비리에 경찰의 취조와 예심을 마친 다음, 만 1년만에야 지상에 전모가 발표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경북 의열단 사건'으로 주모자는 양건호, 곧 이종암이었다. 이종암이 10년 전 만주방면으로 가서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을 조직하여 그동안 많은 폭탄과 권총을 휴대하고 부하들과 같이 조선 내지에 전후 6차례나 드나들며 중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동시에 연전의 상해에서 다나카 대장을 총살하려던 사실과 작년에도 모 중대계획을 실현하려 들어왔다가 그만 거사 전에 검거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수년전 조선에 들어와 대구 모 주점에서 형사 백 아무개와 태연하게 술을 먹었던 일과 5년 전 왜관에서 열린 정구대회에 출전한 일도 있었다는 신문기사들이 이어지면서 이종암의 대담무쌍한 행동에 혀를 내둘렀다. 또한 그가 공판법정에 들어설 때도 침착한 얼굴에 열정이 넘치는 얼굴로 태연하였으며, 신문기자가 사진촬영을 하자 미소를 띠우는 여유를 보였더라고 썼다.

검사는 이종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이종암은 의열단 부장(副將)으로 1917년부터 오늘까지 관청파괴, 관리암살의 음모 등 독립운동을 하여왔고, 장래에도 할 터이니 보다 엄중한 선고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어 이종암이 발언하려 하자 재판장이 이를 저지했다는 기사도 떴다. 이종암은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가출옥된 지 10여일 만에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부인 서(徐)씨에 관한 기사도 났는데, "나의 친정이나 시댁이 모두 빈곤하여 지금은 무의무탁한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고생살이지요, 그러나 나의 남편이 지금 철창에 있다는 것을 매번 생각할 때 지금 나의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아무리 고달픈 살림살이를 한다 해도 저 어린 것(아들 태수)을 세상없어도 공부를 시켜야 하겠기에 지금 대구공립보통학교에 통학시키는 중입니다."라고 하였다. 마침 금년 롯데재단과 민화협이 함께 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이종암 선생의 고손녀인 이채민 양이 선정되어 한층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김병기는 〈독립신문〉사장과 육군주만참의부 참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희산 김승학 선생의 손자이자 대한독립운동총사 편찬위원장을 지낸 역사가 김계업 선생의 아들이다. 고려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해 단국대 대학원에서 독립운동사를 전공, '참의부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대한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위원장과, 희산김승학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다

대북 분야의 '지속가능성' 을 묻다

김지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과장

어느덧 제가 대북 분야에서 일한 지도 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북 분야에서는 꽤 오래 머문 근속년수에 속합니다. 제가 일하는 4년 동안에도 함께 활동했던 젊은 활동가들 대부분 3년을 못 채우고 많이 떠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코로나와 국내외 실정과 맞물려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돈'과 '사람'은 영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영리를 구성하는 자원들 중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북 분야는 여러 배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중에서도 마이너 중에 마이너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비약이 심한 걸까요?

먼저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북사업을 하는 단체들의 수입은 대체로 보조금 혹은 후원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민관이 협력하여 의미 있는 시민참여 행사를 만드는 사업에 대부분 지출됩니다. 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보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보조금 유용의 사태는 이러한 실정과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의 현실성을 파악해서 이러한 지급 부분을 어느 정도 양성화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후원의 손길과 관심도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대북 사업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탓이고, 분단이 '뉴 노멀'인 젊은 세대들에게 더 이상 통일이라는 당위성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도 큽니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는 일단 북한으로 물자나 지원을 하는 길이 막혔기에 후원금이 모인다고 해도 당장 보낼 수 없는 상황에도 기반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가요. 남북관계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도 점점 줄어들뿐더러 이 분야에 발을 내딛었던 젊은 연구자들과 활동가들 또한 여기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최신의 정확한 자료는 물론 방북도 할 수 없다보니 연구 및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없고 후원이 줄다보니 단체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아 인력을 뽑기도 어려워 1인이 감당하는 업무량도 많고 보상도 적습니다.

이런 활동가의 고민을 공감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서로의 연대 외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와 통일부의 주관으로 2021년과 2022년 2차례 '통일부 장관과 대북협력 2030활동가들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직접 간담회 기획과 TF팀장을 맡았는데 그때 팀을 만들면서 처음 같이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알고,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이어 청년들의 대북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실무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북민협과 통일부에서 청년 단기 교육생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정부가 바뀌거나, 정책 관계자들이 필요성과 정례화에 대한 의지를 느끼지 못하면 다음 기약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그 미래 안에 남북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처럼 남보다 못한 사이로 국제관계에서 다른 편에 서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유산을 받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지만 빚을 떠맡을 때도 있습니다. 빚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단의 역사는 그러나 쉬이 포기할 수 없는 막강한 유산이죠. 이렇듯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쉽게 그 짐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과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 대북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던 계기를 떠올려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하면 전쟁이 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전쟁은 겪지 않았지만 분단국가에서 태어난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계속 겪어 왔습니다. 평화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일찍 깨달으면서 말이죠. 조금은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평화와 통일에 대해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요.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 , 국제 정세를 보는 힘

이정도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 수료

통일 문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남아 있다. 한국 근현대사가 전개되어 온 흐름 가운데에서 국가적인 여러 현안들이 해결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국가적인 현안은 조선의 개항,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냉전의 해체 등의 (세계)역사적 흐름 속에서 해결되었지만, 통일 문제는 진전이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제자리에 멈춰 있는 듯하다. 어느덧 통일이라는 문제를 남과 북이 직면한 지 70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성사되었던 남과 북의 만남에서는 여전히 각자의 의견 차이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과연 남한과 북한이 통일 문제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통일 문제의 해결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이다. 민족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남북이 현재 직면하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통일 문제의 해결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한의 인구 감소와 대외수출 감소 문제, 북한의 경제난, 에너지난, 식량난과 여러 사회 인프라 부족 등의 해결은 통일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통일한국은 인구의 증가를 통하여 노동력과 안정된 내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발전된 최첨단 기술과 접근이 편리한 자원의 결합으로 경제 성장,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을 하고, 어떤 이해를 해야 할까?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통일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복잡한 층위의 세부적인 논의들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남북한의 충돌인 한국전쟁의 상처,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국제 관계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다. 통일 문제는 곧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에 있어 북핵 문제는 결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변 4대 강국과 남북 각각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더하여 통일에 적합한 국제 정세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즉 남북의 통일을 승인할 수 있는 우호적인 국제 정세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은 각각 자국의 입장에 맞춰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과 방안을 세워왔다. 그리고 그 전략과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주로 남한과 북한 서로 만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 문제로 쌓인 비핵화,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등의 다층성을 고려해야 한다.

통일 문제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남북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남북이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구별되어야 한다. 예로 한국전쟁의 종결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수정하는 일이 그렇다. 당시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UN이었다. 현재 UN군 사령관을 주한 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으니, 엄밀하게 보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수정할 수 있는 조약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에 반대, 북진 통일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에 조인하지 않았다. 결국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수정하는 작업 하나도 남북의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절대 남한과 북한의 의지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통일 문제는 남북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당사자로서 적극 나서야 할 문제이며, 오랫동안 현존해 온 민족의 숙제이다. 이는 그간 여러 방면에서 남북이 노력해 온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 동북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를 볼 수 있는 확장된 시야를 가지고 객관적인 전략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이 합의를 통해 효력을 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점들과 없는 점들을 구별하고, 한반도 문제를 두고 겹겹이 쌓인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남북통일에 우호적인 국제 정세를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남북의 통일을 위한 회담도 효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진 대립과 갈등이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반도가 있었다. 한반도는 주변 국가들이 치르는 전쟁의 각축장이었으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 다툼의 중심지였다. 한반도는 주위의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결국 지정학적인 요인이 통일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통일 문제 위에 국제 정세에서 기인한 문제가 이중 삼중으로 얽혀 있는 상황도 한반도라는 특수한 위치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남북의 의지와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서 통일에 적합한 국제 정세를 조성하고, 또한 볼 수 있는 힘을 함께 길러야 한다.

백두고원 풍경 담은 작가 안영백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는 평화 위해 힘 보태고 싶어

글 **황지은**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 사진 **김성헌** 객원작가

지난 6월 11일부터 23일까지 서대문구 소재 다다프로젝트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뉴질랜드에서 국제여행사를 운영 중인 안영백 작가가 2019년 9월 백두산에서 삼지연까지 4박 5일 트레킹을 하며 직접 촬영한 백두고원의 사진 전시회가 진행된 것이다. 이번 전시와 함께 책 〈백두고원 트레킹〉도 펴낸 안영백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백두고원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인터뷰는 6월 20일 전시회장에서 진행되었다.

Q |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2018년, 2019년 두 차례 방북했다. 특히 2019년 9월에는 4박 5일간 백두산 트레킹을 진행했다. 방문 당시에는 특별히 책을 쓰거나 사진 전시회를 열 생각은 없었다. 단지 오랫동안 백두산 트레킹을 열망했기 때문에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백두산 방문 후 2020년 1월부터 다른 매체를 통해 기행문을 연재한 바 있었다. 그 글을 보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이 책으로 엮어 출판해 보자고 제안했다. 책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과 남북교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출판을 결정했다. 책과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만 정용일 국장이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 어린 자녀가 둘 있는데, 책 출판과 사진 전시회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보태고자 한다. 남겨진 자녀들이 아빠를 이어 통일 일꾼으로, 남북 교류에 이바지할 꿈나무로 자라나는 데 적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Q | 사진들이 모두 훌륭하다. 사진을 전문적으로 배우셨나

"평소 여행을 다니면서도 사진을 많이 찍기보다는 기억에 담아오는 편이다. 그런데 막상 백두산을 오르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졌다. 평소와는 다르게 이 특별한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지고 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돌아온 후 사진에 조예가 있는 주변 분들이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해주셨다.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 없이 있는 그대로를 찍었는데 피사체가 워낙 아름다워서 사진도 잘 나온 것 같다."

Q | 남북교류가 오랫동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시회를 열었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가장 먼저 백두산을 4박 5일 트레킹 코스로 방문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신기하게 생각하신 것 같다. 백두대간 코스를 직접 걸어보며 책에 묘사한 것과 같은 감동을 본인들의 가슴에도 품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특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킷리스트로 삼기도 하셨는데, 저는 제 버킷리스트 1호를 가장 먼저 달성한 셈이다."

백두산 트레킹, 국제낚시대회 추진할 것

Q | 2001년 뉴질랜드 이민 후 현재 국제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에 조선-뉴질랜드 친선협회가 있다. 주로 백인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과정에서 단체를 알게 돼 같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UN이나 유니세프에서 개발도상국의 농업, 의료 지원 등의 활동을 하던 분들을 주축으로 설립됐다. 현재도 북한에 있는 농장에 대한 식량 개발이나 농업 지원, 어린이·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한인들도 교류하고 서로 융합돼 활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남북 교류의 시작은 서로 오고 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 전부터 여행업계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 조선전문여행사(조선제일여행사 네이쳐코리아)를 별도로 설립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협회가 북측 관련 기관과 만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Q |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 국적자들의 방북은 어려웠다. 처음 방북했을 때 감회가 어떠했나

"남한이 고향인 아버지와 북한이 고향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의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 좋은 기억들을 듣고 자란 저에게는 북은 그저 외가와 같은 곳이었다. 특별한 거부감이나 경계 의식이 없었다. 첫 방문은 사업에 대한 논의 때문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겪어본 북측 인사들은 사업 진행이라든지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진취적이었다. 또한 관광 사업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Q | 방북 당시 백두산 트레킹 외에 국제낚시대회 사업도 논의한 것으로 안다

"2019년 백두산 트레킹 후 강원도 원산, 통천, 고성과 동해안 일대를 답사했다. 산과 바다, 강을 돌아보며 낚시 투어 코스를 구상하고 세계인이 함께 하는 국제낚시대회 개최를 준비했다. 당시 북측 실무진과도 협의가 잘 되어 2020년 5월에 〈조선국제낚시질경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공식 확정된 상태였다. 사실 낚시대회의 경우에는 고 정주영 회장의 고향인 통천의 시중호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었다. 개인적으로 남북 교류에 이바지한 정 회장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낚시 대회 이름을 '아산배'로 하자는 제안도 했다. 하지만 당시 남북의 분위기상 이름을 넣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북측 인사들도 남북 교류와 통일에 애쓴 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아이디어에 반가워한 기억이 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계획대로 대회를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경이 열리면 백두산 트레킹과 함께 낚시 대회와 투어도 빠른 시일 내로 진행하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야외 스포츠 중 낚시가 가장 발전되어있다. 등산협회는 없어도 낚시협회는 도 단위, 시 단위별로 있고, 일 년에 춘계, 추계 두 번 전국낚시대회가 열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앞으로도 자전거나 오토바이, 서핑 등 남한에서 즐기는 취미생활을 북측에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교류했으면 한다. 관광 개방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교류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쌓이고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지 않을까.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Q | 뉴질랜드에서는 자유로운 방북이 가능해 사업 추진이 가능했을 것 같다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방북에 대한 제재가 없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있는 젊은 한인들도 북한을 방문하곤 한다. 그들 역시 직접 방문한 후 북에 대해 재평가를 한다. 통일은 제가 아닌 후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교류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주변 한인 청년들의 방북을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백두산 트레킹 때는 제 큰아들도 함께 갔다. 당시 서른 살이었는데 북한에 처음 가서 등산도 하고 평양도 방문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방문 전에 비해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둘째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자식들을 데리고 북한을 방문해 봐야지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닌 나의 아이들, 후대가 바라는 남북 교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함께 북한에 방문하고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영백 작가가 펴낸 〈백두고원 트레킹〉에는 백두산을 비롯한 백두고원의 절경이 담겨 있다.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평화의 시작

Q | 뉴질랜드나 다른 해외동포들의 경우 북한에 대한 편견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간혹 북한은 무조건 나쁜 나라, 가면 안 되는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막상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답을 하지 못한다. 결국 북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K-POP 등 문화 강국으로 한국이 잘 알려졌지만 한반도의 분단상황 등 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관심 밖이다. 우리나라가 10대 경제국에 들었지만, 여전히 코리아를 낮게 보는 서구인들도 있다. 외국에 살다보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거기에 경제력 등으로 똑같이 되받아치는 우리 동포들도 많다. 그렇게 서로의 약점만 보려고 하고 상대를 이겨야만 한다는 정서가 요즘 전 세계,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서로 좋은 면을 먼저 보고 존중하는 문화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결국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전 세계가 서로 반목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Q | 이후 활동 계획을 소개해 달라

"사진 전시를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순회도 하고, 또 제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는 강의도 생각하고 있다. 또 북한의 국경이 열리면 바로 입국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을 협의해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

Q | 어찌보면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동시에 민간 통일운동도 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제 청년층의 방문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통일부의 허가가 어렵겠지만 일단 도전해야 한다. 같은 평양에 방문하더라도 젊은 세대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북측 인사들과 만날 때도 청년들이 방문한다고 하면 되도록 막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한다. 남북 교류가 어렵지만, 뉴질랜드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했다. 가령 철새 도래지에 환경 연구를 하러 가는 청년들도 있다. 한국의 청년들의 경우 항일운동 역사나 고구려 역사를 공부하러 중국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측에도 얼마든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청년들이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북측을 방문하길 바란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결국 만나야 평화와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

"평화의 길을 함께 그리다 !" 2023 통일문화축제의 현장으로 !

이으뜸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 서강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DMZ 플로깅에 나서고 있는 〈2023 통일문화축제〉 참가자들.

손명원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왼쪽)과 경기도 파주시가 지역구인 박정 국회의원(오른쪽)이 함께 행사를 축하하고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손명원)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및 캠프 예그리나에서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2023 통일문화축제〉를 개최하였다. '평화의 길을 함께 그리다'라는 주제로 민화협이 주최하고 서울신문이 주관, 통일부와 파주시가 후원한 2023통일문화축제는 국민화합과 소통,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가문화 생활 속에서 통일문제를 주제로 하는 생활형 평화통일운동의 모델로 기획되었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 파주 소재 캠프 예그리나에서 가족 단위로 캠핑을 즐기며,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명소로 거듭난 DMZ 평화의 길(민통선 생태탐방로)을 걷는 DMZ플로깅(plogging, 조깅하며 쓰레기 줍는 일), 평화누리공원에서 진행되는 통일음악회, 평화통일 4행시 어린이 백일장 대회, 다양한 체험부스(소원무궁화 만들기, 평화통일 부채 만들기, 통일 이음 그립톡 만들기, 소원 팔찌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풍선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참가자 모두가 평화와 통일에 대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6월 2일부터 시작된 예그리나 캠핑 참여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신나는 평화통일 퀴즈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캠핑을 하는 동안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퀴즈 프로그램 진행 중 '북한의 국화는 무엇일까요?'라는 퀴즈에 한 참가 학생이 "무궁화!"라고 답을 하였다. 왜 무궁화냐고 했더니, "남과 북은 하나니까 같은 국화를 쓰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었다. 비록 정답은 아니지만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다.

평화를 소원하며 민통선을 걷다

6월 3일, 메인 프로그램인 DMZ 플로깅은 전쟁의 아픔이 깃들어있는 분단의 땅 파주이지만, 남북교류를 위한 길목을 하는 역할도 하는 지역인 만큼 평화의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환경까지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행사가 열렸다. 플로깅 코스는 도보로 약 60분 정도 소요됐는데,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내의 평화의 종각에서부터 임진강 생태길을 따라 통

일대교 하단까지 이동 후 다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으로 돌아오는 루트였다.

평소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민통선 지역을 걷는 행사다보니 사전 신청자를 받았다. 따사로운 6월의 햇볕이었는데도 남녀노소 5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단순한 걷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DMZ 생태 보존과 관련하여 쓰레기도 함께 줍기도 해 그 의미가 더했다.

체험부스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궁화를 만들어보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축제 참가자들.

는 '소원 무궁화 만들기', '평화통일 백일장 대회', 통일된 모습을 부채에 그려보는 '평화통일 부채 만들기', 내가 그린 평화통일 그림을 담은 '통일 이음 그립톡 만들기', 우리의 소원인 통일과 나의 소원을 담은 '소원 팔찌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 모두가 각자의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통일 이후의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통일 이후에 무엇이 하고 싶은지에 대해 열심히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또 자신에게 평화가 무엇

축제에 참가한 아이들이 통일부채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인지,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는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후 2시부터 행사 개막식과 통일음악회가 열렸다. 통일음악회에서는 흥을 돋구는 디오네(3인조), 백프로(핑크)와 같은 가수들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의 무술과 태극기 등을 결합하여 멋진 공연을 하는 길가온 그룹(퍼포먼스)의 공연까지 멋지게 진행되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중노래까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음악회 덕분에 참가자 모두가 신나게 즐길 수 있었다. 이렇게 2023 통일문화축제가 마무리 되었으며, 체험부스에서 받은 스탬프를 통해 가는 길에 모든 참가자들이 기념품도 받아 기분 좋게 귀가하는 모습으로 행사는 정리되었다.

함께 진행된 통일음악회도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꿈이 아닌 현실로 통일이 다가오길

어린 학생 참가자들의 경우 평소 학교나 뉴스에서 접하는 북한과 통일은 어렵지만, 가족들과 함께 신나는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평화 통일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유익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평화통일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일상 속 평화통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는 참가자들의 소감도 남겨주었다.

〈2023 통일문화축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로서 충분한 성과를 보여준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정성껏 써내려간 평화통일 주제 사행시들.

롯데장학재단 - 민화협 <제4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글 **김민아**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 | 사진 **김동진** 객원작가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천영우)과 민화협이 4회째 진행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5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렸다. 천영우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손명원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독립유공자 장학사업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종찬 우당이회영선생 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선발된 국내외 장학생 50명과 가족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했다.

천영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의 선조들은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일본 제국을 상대로 결기를 보여주신 분들이며, 그런 정신이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게 만들었고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힘의 원천"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학재단은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손명원 대표상임의장은 축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엄혹한 시기에도 민족교육을 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지원서에 장학생들이 조국광복을 위해 애쓰신 선조들의 희생을 두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성공으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 느꼈다고 말했다.

외국인 학생 대표로 감사 인사를 한 마사 로미나 히메네즈 킴.

장학증서 수여식 인사말을 전한 천영우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종찬 심사위원장은 롯데그룹의 창업자 고 신격호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신격호 회장이 일제강점기 일본에 건너가 역경을 딛고 성공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듯이, 장학생들이 겨레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수여식에는 멕시코 국적의 후손 마사 로미나 히메네즈 킴(Martha Romina Jimenez Kim)학생이 직접 참석해, 해외학생들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했다. 로미나 학생의 고조부인 박준삼 유공자는 멕시코로 이주한 뒤 한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 1905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로 보냈다. 그의 아들이자 로미나 학생의 증조부인 김성택 유공자도 멕시코에서 독립자금을 모아 해방 때까지 고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한인회를 설립하여 한국의 언어와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로미나 학생은 "멕시코로 이주한 선조들께서는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들이 지켜낸 한국은 지금 아름답고 자유로우며 강대국이 되었다"며 선조들의 희생에 존경을 표했다.

또한 한국 재학생을 대표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강신찬(신현모 유공자 증손) 장학생이 선발의 기쁨을 전했다. 앞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들 간의 협력활동을 통해 민족문제와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이어가고, 한반도 평화와 융성의 초석을 놓는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롯데장학재단과 민화협은 〈제4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으로 50명의 장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작년보다 약 2배 많은 530여 명의 국내외 후손들이 지원해 경쟁률이 12:1에 이를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의병장 왕산 허위,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류자명, 항일무장투쟁 양세봉, 의열단 이종암 후손 등이 선발되었다. 장학생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8월 중 독립운동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 민화협 청년 평화기행 “함께 걷는 평화의 길”

글·사진 **전병화**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민화협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재선·진창호)는 6월 9일부터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2023 민화협 청년기행’을 다녀왔다. “함께 걷는 평화의 길”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기행은 강원도 속초와 고성 일대를 찾아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아픔, 통일의 미래를 느껴보고자 준비되었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2030청년과 민화협 회원단체 청년회원 30여 명이 참여했고, 이기제 강원피스투어대표가 동행하면서 해설과 특강을 했다.

기행은 화진포의 성(김일성 별장)부터 시작되어 제진역(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PTX), 고성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아바이 마을 순으로 진행됐다. 고성지역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38도선에 의해 북한으로 편입됐지만, 6·25전쟁을 겪으면서 남한이 일부 영토를 수복해 북고성과 남고성으로 나눠졌다. 이기제 대표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원산을 병참기지화하면서 원산에 있던 휴양소를 고성 등으로 이동시켰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독일인 건축가가 고성 화진포에 별장 겸 예배당을 지었고, 그것이 바로 화진포의 성이라고 했다. 화진포의 성은 김일성 별장으로 유명하다. 화진포의 성에서 김일성 주석 가족이 방문했던 사진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진역은 동해안철도남북출입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 제진역은 통일과 평화, 대륙으로의 꿈을 담은 최북단 철도역이라는 의미가 있다. 제진역에서 10.5km 더 가면 북한의 감호역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휴전선으로 막혀있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역사는 정식으로 역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역사 문화 관광지로 활용되며, 현재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PTX)’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 코스로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았다. 고성 통일전망대는 우리나라 최북단 전망대로 남북한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던 시절인 1984년 세워졌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기 전, 고향이 북한인

동해선철도남북출입사무소 내 철길에서 창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실향민들이 북녘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던 분단의 현장이기도 했다. 전망대에서 관람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DMZ 박물관을 찾았다. DMZ 박물관은 민통선 내에 있는데, 남북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졌다고 한다. 전쟁 당시와 직후 접경지역에 거주하던 국민들과, 전쟁을 피해 내려온 실향민들의 참상을 보면서 전쟁의 비극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속초씨크루즈 회의실에 도착한 기행단은 ‘분단 지역 이야기, 함께 걷는 평화의 길 참가자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다. 엄경선 설악신문 전문기자가 ‘분단과 납북귀환어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엄 기자는 속초의 대표적인 분단사례로 ‘납북귀환어부’를 꼽으며, 국가가 군사 안보 논리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탄압한 대표적인 국가폭력사건이라고 했다. 제주 4·3사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려 고문으로 고통받고 후유증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앞으로 속초가 이데올로기로 인한 상처, 남북한의 분쟁, 갈등의 바다가 아닌, 화해와 평화, 협력의 바다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전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참가자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다. 자기소개와 함께 남북 교류 및 화합,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나눴다. 채승재 원불교청년회 부회장은 “책과 교육으로서 간접적으로 한국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알고 있었는데, 강원도 접경지역을 몸소 기행하면서 경험해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고, 접경지역이 전쟁과 분단의 비극에서 벗어나 통일을 앞당기는 장소로 변모했으면 좋겠다”고 기행소감을 말했다.

2일차 일정으로 속초 아바이 마을을 방문했다. 아바이 마을 해설은 실향민 2세 심삼옥 대표가 맡았다. 현재 속초 아바이 마을은 드라마 촬영지, 갯배와 먹거리로 유명한 장소지만, 원래는 6·25전쟁 중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살아남으려고 집단으로 촌을 이룬 곳이라고 했다. 잠시 머무르려고 했던 것이,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고향에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피난민이 아니라 실향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후 마을에 정착하여 현재와 같은 곳이 되었고, 앵고치 마을, 짜고치 마을, 신포 마을 등이 대표적인 아바이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 일정으로 속초시립박물관을 방문했다. 박물관에는 납북귀환어부 이야기, 남북관계 이야기, 실향민 거주지를 재구성한 공동주택 등 속초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야기와 문화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청년들의 1박 2일 강원도 접경지역 기행.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단의 비극을 몸소 느끼기엔 충분했던 시간이었다. 접경지역을 같이 걷고 경험하면서 청년들에게는 남북이 서로 총칼을 맞대고 싸울 상대가 아니라 상호 공존해야 하는 관계임을, 더 나아가 평화와 통일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관계임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민화협 독일 베를린지회 두 번째 세미나 “서베를린은 섬이었다”

글·사진 **장은영** 민화협 베를린지회 회원

민화협 독일 베를린지회(상임의장 정선경, 이하 베를린 지회)는 6월 16일 “서베를린은 섬이었다”라는 주제로 온대야(on 대화 ja, ‘ja’는 ‘yes’를 의미)의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미 시작 전부터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독일의 경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고민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채민진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석사과정생이 사회를 본 이날, 독일 내 한국인 유학생들과 동포들뿐만 아니라 한국,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50여 명이 넘는 청중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파독 간호사 출신이자 독일 분단 시절 서베를린에 거주했던 최영숙 씨가 연사로 나섰다. 최 씨는 동서독 분단시절 서베를린에서 거주하며 겪었던 생생한 경험들을 전했다. 특히 당시 분단국가의 분단 도시였던 베를린에서 서독으로의 여행이나 서베를린 봉쇄와 공수작전 등에 관한 설명은 당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과 젊은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지리적으로 동서독 분단시절 베를린은 동독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마저도 동서베를린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작은 서베를린만 동독 안에 있는 셈이어서 당시 소련은 서베를린마저도 동독에 편입되기를 바랐다고 한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서베를린 봉쇄였다.

베를린으로 이어지는 전기, 도로, 철도, 수로 등을 모두 봉쇄하다보니 서베를린에는 생필품 공급은 물론 나중엔 상수도마저 공급이 끊기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미군의 주도로 연합군이 비행기에 식량과 석탄 등 생필품을 실어나르는 공수작전이 전개됐다. 첫 작전 때 갑자기 날아오는 비행기들에 놀란 나머지 서베를린 시민들은 공격으로 오인하여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이내 알아차리고 환호했다고 한다. 연합군의 엄청난 물량공세는 베를린 시민들이 생활을 하고도 남아 비축할 정도였다. 공수 물자도 초기엔 주로 필수품이었으나 후에는 담배, 커피 기호품까지 수송하여 낙하산으로 떨어뜨렸다고 한다. 특히 게일 해버슨이라는 조종사는 한 개의 껌을 여러 사람이 종이 냄새까지 맡으며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고, 사비를 털어 사탕과 초콜릿 등을 구입해 떨어뜨렸는데, 아이들은 이것을 ‘사탕폭격기(Candy Bomber)’라고 불렀다. 베를린 공수작전은 서방에서 서베를린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베를린에서 생산된 공산품수출을 위해 서방으로 실어 나르기도 했다.

남북한과 달리 동서독은 분단된 시기, 냉전체제 속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신청을 하면 동독의 친척들도 수시로 방문할 수 있었으며 생필품은 물론 커피 등 기호품도 수시로 보내줄 수가 있었다. 섬이었던 베를린의 인구유입을 위해 특혜를 주기도

① 서베를린은 섬이었다” 주제 온대야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

② 행사를 소개하는 포스터.

했는데, 예로 서베를린에 정착하는 젊은이들은 징집면제가 되었으며, 서독에서 서베를린에 오면 살 집을 구할 때까지 3개월간 머무를 집을 지원해 주고 일정기간 서독 본가를 방문하는 교통비도 지원해줬다.

이어 ‘동백림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7월 당시 한국 중앙정보부가 서유럽 내 거주하는 한인 교민과 유학생들이 간첩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한 공안사건이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동백림 사건은 독일 내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독일 음악가들과 프랑스 정부 그리고 서독 연방 정부의 인사들이 나서 구명 운동을 했었다고 당시 정치 상황을 전했다. 최 씨는 동백림 사건을 두고 한인 사회가 이념적으로 분열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여파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1960년대 유럽을 달군 68혁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서베를린에서 출발하여 서구 사회 전체에서 일어난 68혁명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 당시 68혁명은 크게 반권위주의, 반국가폭력, 반베트남전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68운동을 통해 여성들의 교육 신장의 필요성과 계몽활동이 많이 있었고, 이는 당시 재독 한국여성 모임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한다.

성황리에 마친 이번 행사에 이어 세 번째 세미나는 오는 9월 중순 “국경 분단 지점 사망자들의 추모와 기억 그리고 미래 세대들의 과제”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장은영 베를린훔볼트대학교 정치사회학 석사과정생이 발표자로 나선다. 베를린뿐만 아니라 구 동독 지역의 국경 분단 지점 피해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민화협 베를린지회는 지난 6월 24일 제2회 한반도평화염원 자전거투어 및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도 진행했다. 또한 독일 분단시절 서베를린을 둘러싸던 약 160킬로미터 길이의 옛 장벽길을 걸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생각해보는 “베를린 장벽길을 따라 평화를 향해 걷다” 프로젝트도 2022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베를린지회 정선경 상임의장은 “한국에서 베를린을 방문하는 분들도 장벽길 걷기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음 사이트를 접속하면 장벽길 걷기 프로젝트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 소식들을 접할 수 있다. (https://berlinpeacewalk.mixon.io)

김정은 시대 '새 시대 농촌강령'의 등장

송현진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민화협은 2019년부터 롯데장학재단과 공동으로 북한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족화해〉는 본 사업에 선정된 우수 논문을 한 편씩 요약하여 소개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월 21일 만수대창작사와 평양미술대학이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투쟁 목표 실현을 고취하는 내용의 선전화를 새로 창작해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연합

김정은 정권은 집권 초부터 인민생활 향상을 국가목표로 제시하고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여러 차례 농업 분야의 개혁정책을 제시하고, 농업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할 농업 기반시설도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북한은 2021년 12월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 시대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하 새 시대 농촌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2022년 9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해 '새 시대 농촌강령'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권 10년을 넘긴 김정은 정권이 지금까지 북한 유일의 농촌강령이었던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대신해 '새 시대 농촌강령'을 채택한 배경은 무엇일까?

도농 격차 심화, 농민 소외감과 불만 고조

현재 북한사회는 시장화 진전에 따른 소득분화로 빈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평양과 비평양, 지방 내에서도 북중접경지역과 내륙지역,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국경과 떨어져 있어 외화벌이를 할 수 없는 내륙지역은 주로 곡창지대로 이루어져 농촌지역의 상대적 빈곤감과 농민들의 소외감,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최근 김정은은 2022년 1월 조선농업근로자동맹에 보낸 서한에서 농촌문제의 절박함을 언급하고 있다. 김정은이 직접 "농촌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이 늘어가고, "농촌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 농민들의 의식과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보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농민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농촌 저발전에 따른 농민의 불만은 일탈과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어 불만을 잠재울 새로운 농촌정책이 필요했다고 여겨진다.

북한사회에서 식량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면서 안보문제이다. 북한경제 활성화에 있어 농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지지에 기반 한 안정적인 정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핵 개발로 조성된 국제적 고립과 군사 긴장 고조는 군량미 비축 등의 군사적 수요의 증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군대가 식량 배분 우선권을 가짐으로써 북한 사회의 식량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6·28방침, 2014년 5·30조치, 농장법 개정 등 여러 가지 개혁 조치와 과학영농을 추진해 생산성을 증대하려고 고군분투해왔다. 하지만 개혁을 뒷받침할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식량의 생산성 증대에 한계가 있고, 이는 다시 북한이 농업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하여 농업생산성은 정체되고 식량수급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도시인구를 위한 식량공급기지로서 농촌 기능의 유지와 안정적인 체제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이 '새 시대 농촌강령'이라는 새 카드를 꺼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농민, 농업, 농촌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새 시대 농촌강령'을 채택함과 동시에 농업투자 및 농촌 지원 확대, 협동농장에 대한 각종 특혜조치를 발표했다. 새로운 농촌건설을 위한 당면한 전략으로 농민의 개조, 식량문제의 해결,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을 제시했다.

농민의 지식형 근로자화

김정은 정권은 '새 시대 농촌강령'에서 농민을 현대적 과학기술로 무장한 '지식형의 근로자'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농민의 지식형 근로자화는 농촌현실과 농촌개혁정책의 간극을 극복하고, 기술혁명을 통해 농민을 추동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정권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김정은 정권의 의지의 표현으로, 새로운 농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에 따라 농민들에게 농업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농민들을 배치해 전반적인 기술지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특히 청년세대 농민들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높여야 하며, 농촌에 대학졸업생을 많이 배치해 그들을 중심으로 농장의 기술력을 증대해야 한다. 이는 최근 청년들의 농촌 탄원 열풍과 그 맥을 같이한다.

북한은 '새 시대 농촌강령'에서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했다. 농업생산의 발전이 북한 체제의 존망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북한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서는 과학농사제일주의 방침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 한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생산의 안정적, 지속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의 확립, 농업 부문의 과학기술력 강화, 지도와 관리의 개선, 농촌경리의 수리화·기계화·화학화·전기화를 실현해 농업생산을 증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의 채무를 탕감하는 특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열악한 현실의 농민들을 달래 생산 의욕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새 시대 농촌강령'에서 모든 농촌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자고 제시했다. 삼지연시를 모델로 전국의 모든 농촌을 변모시켜 농촌과 지방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즉 지방과 도시 경제의 균형적·동시적 발전을 이루겠다고 천명하며, 농촌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하나가 삼지연시의 전국화를 통해 농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새 시대 농촌강령' 발표 후 북한 정권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농촌 살림집 건설로 보인다. 살림집 건설 현황을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하고, 어느 도와 시, 군이 앞서가고 있는지 비교해서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964년 선포된 '사회주의 농촌테제'와 비교한 결과, '새 시대 농촌강령'의 특징은 세 가지로 드러났다. 첫째, '사회주의 농촌테제'가 추구한 농민이 노동계급화를 통한 '사회주의 근로자'였다면, '새 시대 농촌강령'에서는 농민의 '지식형 근로자화'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농촌테제'에서 농민들의 노동력 중심의 생산성 증대를 강조했다면, '새 시대 농촌강령'은 과학기술 중심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 농촌테제'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선진적인 도시가 낙후된 농촌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면, '새 시대 농촌강령'은 도농 간 차이를 줄여 전 사회의 균형적, 동시적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새 시대 농촌강령'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전면적, 균형적, 동시적 발전'을 선언하고, 이를 통해 '부흥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장기적인 국가발전구상을 제시했다. 김정은 집권 후 전개해 온 경제개혁정책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전제로 향후 15년 내외에 사회주의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구상 속에서 '새 시대 농촌강령'은 전체 지역의 균등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위 실천전략으로 자리한다. 이것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추진해 온 중국이 2006년부터 농민과 도시주민 전체가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평하게 누리는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목표로 '신농촌건설'을 추진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한편 새로운 국가발전구상은 2018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재집권화, 보수화를 추진하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경제개혁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장기적 국가발전구상과 자력갱생, 정면돌파전이라는 전략으로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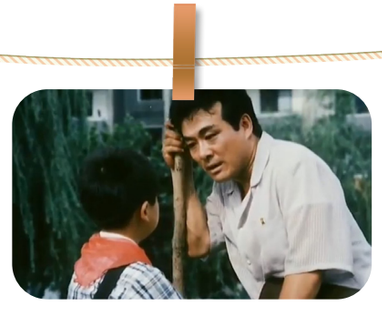
현재의 북한 실정에서 과학기술로 무장한 지식형 농민, 과학기술에 기반한 식량 증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농민들은 대부분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이 낮고, 국가의 막대한 투자 없이 농촌에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등 원격교육은 주로 특급 및 대형기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든 협동농장의 농민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현재의 경영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협동농장의 개혁을 보다 심화하지 않는 한 식량문제의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현재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이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시·군 단위의 자체적 역량에 의존하는 농촌마을 개선은 어려운 과업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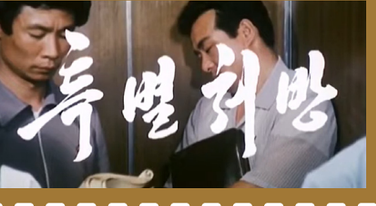
북한은 앞으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농촌에서 개혁 조치를 계속해서 실시할 가능성이 크며, 이와 함께 '새 시대 농촌강령'도 지방과 농촌의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식량문제 해결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단영농과 토지의 사적 소유 불인정이라는 북한농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분적인 개혁과 새로운 농촌강령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식량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더 과감한 개혁을 위해 중국처럼 가족농 제도를 도입하고 수매제도 개혁 등을 실시해 농민들의 자발적 노동의욕과 생산열정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도시와 농촌이 모두 잘 사는 '부흥강국'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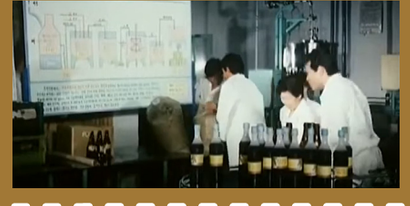
문화모니터 - 영화 속 북한 이야기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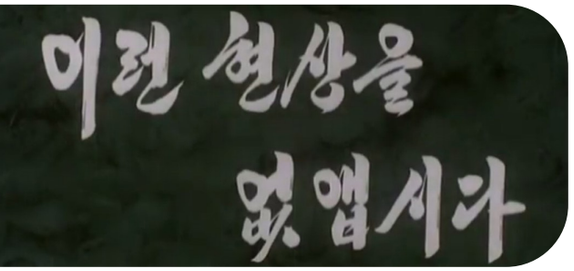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자 <특별처방>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 북한연구학회 회장









〈특별처방〉은 평양연극영화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에서 제작한 18분 길이의 방송물로 한관언이 영화문학을, 방영기가 연출을 하였다. 제작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통일거리 건설 사업에 지원나가자'는 대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1980년대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처방〉을 제작한 평양연극영화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은 영화계에 종사할 예비영화인을 양성하는 북한 최고의 영화대학이다. 영화대학 학생들을 위한 영화촬영소로 시작하였다. 지금은 문화성에서 운영하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인민군에서 관리하는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엿한 전문영화촬영소로 북한의 3대 촬영소의 하나가 되었다.

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하였지만 텔레비죤토막극 시리즈물인 '이런 현상을 없앱시다' 시리즈의 한 작품으로,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자는 주제의 영화이다. 주인공 만오는 평소 운동하기를 끔찍이도 싫어한다.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 하는 일은 담배부터 찾는 것이고, 아침 운동도 손발을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으로 대신한다. 건강도 약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약만 챙겨 먹는 만오가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운동으로 건강해진다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손가락 발가락 꼬물거리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하는 만오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달리기도 하고 체조도 하고, 냉수마찰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건만 만오는 아침에 눈을 뜨면, 누운 자리에서 아들에게 담배심부름을 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보다 못한 부인이 나선다. "운동 좀 하세요. 그렇게 운동하지 않으니 기운이 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운동은 시작했소." 만오가 하는 운동은 자리에 누워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이 전부였다.

아침에 일어나 담배부터 찾고, 몇 층 안 되는 높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잘 걷지도 않았다. 직장에서 단체로 하는 운동도 맨날 지각이었다. 상사가 그런 만오를 나무란다. "동무는 왜 체조 시간에 맨날 늦소", "이게, 약 먹는 시간에 체조를 하다보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만오지만 약은 시간에 맞추어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그리고 약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약만 믿고 평소에 건강을 챙기지 않으니 건강할 수 없었다. 중요한 회의 시간에도 꾸벅꾸벅 졸다가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직장에서 회의 시간에 졸기나 하는 만오인지라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집에서도 만오는 한심한 사람이었다. 부인이 청소 좀 도와달라고 해도 "힘들다"면서, 발로 빗자루를 '휙~' 밀어서 부인에게 주었고, 부인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면 누워서 발만 들어 피하였다.

처장은 만오가 딱했다. 만오의 집을 찾아와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잘 하라고 권했다. "운동이 싫다면 냉수마찰이라도 해서 건강을 챙겨야지, 젊은 사람이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걱정 겸 충고를 하였다.

운동은 몰라도 냉수마찰 정도야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만오는 시원하게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제 이제부터 냉수마찰로 건강을 꼭 챙기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냉수마찰쯤이야.” 만오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는 다음 날 아침 냉수마찰을 시작하였다. ‘헐~’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날이 더워도 차가운 물이 몸에 닿으니 몸이 오싹하게 덜덜 떨렸다. “여보. 더운 물 없어!” 결심은 하루를 가지 못했다. 냉수마찰 한 번 했다가 그대로 감기에 걸렸다. 냉수마찰은 실패.

직장에서도 운동할 시간이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단체로 탁구도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데, 직장에서 단체로 하는 보건체조 시간에도 지각만 하였던 만오에게 탁구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후과(결과)’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으니 언젠가 사고가 나는 것은 당연했다. 만오는 건강으로 사고를 치고 말았다. 만오는 능력 있는 기술지도원으로 새로운 공정관리를 통한 장(醬) 생산 체계를 제안하였는데, 만오의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공장에서는 공정관리를 새로 구성하고 있었고, 새로운 생산 체계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 마지막 공정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기여서 직장에서는 모두 나서서 장 공장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다. 만오는 자신이 제안한 사업인 만큼 자기가 책임지고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만오는 공장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직접 생산 체계에 대한 ‘시범방식 상학(시범 사업)’을 주재할 것이라 알렸다. ‘시범방식 상학’ 시간은 2시였다. ‘시범방식 상학’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다. 만오는 잠깐 눈을 붙이기로 하고는 의자에 누었다. 잠깐 눈을 붙인다고 누웠던 만오는 이내 곤하게 떨어졌다.

공장에는 ‘시범방식 상학’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회의를 주재하겠다는 주인공인 만오가 보이지 않았다. 처장은 공장으로 전화를 걸어 ‘만오’를 찾았다. 전화를 받은 부원이 만오를 찾았다. “지도원 동무, 아직까지 잠만 자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처장 동지랑 총국장 동지가 장 공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요!” 놀란 만오가 서둘러 일어났다. 남은 시간은 10분. 헐레벌떡 뛰어서 정류장까지 급하게 갔다.

‘아뿔싸.’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름 급하게 달려갔는데, 버스 기사가 만오를 보지 못하였다. 텅 빈 정류장을 보고는 버스가 ‘획~’하고 지나갔다. “어~, 안 되는데. 서라요. 서라!” 만오가 다급히 손짓했으나 소용없었다. 낭패였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어떻게 할까. 두리번거리는데, 저기 마라손(*북한에서는 마라톤을 마라손으로 표기) 선수들이 보였다. ‘할 수 없다. 나도 달려야지’ 만오는 달리기로 하였다.

그때 만오의 아들이 마침 집으로 가다가 달리고 있는 만오를 보았다. “아버지 어디 가시나요? 나도 같이 갈래요.” 졸지에 아들과 함께 달리게 된 만오는 아들에게 달리기 요령을 알려준다. “호흡조절을 해야지. 호흡조절을…”

하지만 정작 호흡조절을 해야 할 사람은 만오 자신이었다. 삐질삐질 땀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달리던 만오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가로수를 붙잡고 겨우 호흡을 가다듬는데, 하늘이 노래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그리고 쓰러졌다. 마침내.

몸을 단련해야 혁명도 충실할 수 있다

만오가 다시 눈을 뜬 곳은 부인과 처장이 걱정스럽게 만오를 지켜보고 있는 방안이었다. “여기가 어딘가요. 시범방식 상학은 어떻게 되었나요?”, “동무가 없어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걱정 말고 동무 병부터 고쳐야 겠소.”, “제가 무슨 병에 걸렸답니까?”, “글쎄. 한 서너 달 쉬면서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군”. 처장의 말을 들은 만오는 넋이 나갔다. “서너 달씩이나요. 제가 맡은 새로운 생산 체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특별처방이 있는데, 하라는 대로 하겠는가?”, “암요. 여부가 있나요,”, “만호동무! 운동을 정상적으로 해서 몸을 단련해야지. 그렇지 않고 병이 생기거나 허약해지면 아무리

혁명에 충실하려고 해도 충실할 수 없소. 건강의 비결은 운동에 있는 거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건강 문제로 단단히 망신당했던 만오는 대오각성하였다. 다음날부터 아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도 하고, 냉수마찰도 하였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탁구도 열심히 쳤다. 그리고 그 좋아하던 담배도 뚝! 5층 정도의 높이는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걸었다.

그렇게 건강을 되찾은 만오는 자신이 제안한 새로운 생산 체계 사업도 열성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인민체력검정’에서도 너끈히 합격을 받았다. 인민체력검정은 주민의 개인별 체력을 검사하는 제도로 1948년 7월 인민위원회 교육국 명령(제8호)으로 공포되었다. 초기에는 9월부터 10월 사이 한 달 기간에 실시하다가 1987년부터 8월부터 9월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전영선은 한양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올해 제27대 북한연구학회장을 맡았다. 북한 사회문화 및 문화예술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펴낸 국내 최고의 북한 문화예술 전문가이다.

문학 속 통일미래 38

청년 과학자의 연구 신념에 대한 지도자의 배려와 믿음 - 송혜경의 「인재」론

오태호 경희대학교 교수 · 문학평론가

선전화 포스터 (『조선문학』, 2020. 6)

1. 과학 인재 강국에 대한 기대감

송혜경의 단편소설 「인재」(『조선문학』, 2020. 10)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모토를 내세우며 '자력갱생'과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는 최근 김정은 시대 수령형상문학의 풍경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는 해방 이후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어져온 정책적 근간에 해당한다. 이미 1952년 '과학원'이 설립되었으며 1956년 천리마운동 이래로 과학기술자들이 현장에 진출하여 연구와 지원을 지속하면서 일종의 '기술혁신' 운동을 이끌었으며, 1980년대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표된 이래로 다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마련된다. 이후 1998년부터 다시 '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과학기술'이 '강성대국'을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강조된다.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도 '과학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새로이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2013), 위성과학자주택지구(2014), 미래과학자거리(2015)' 등의 현지 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김정은이 '노동당의 과학 중시' 방침과 함께 '과학 인재 강국 건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미 2013년에 '제9차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핵심 지표로 천명한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선차적 과제로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꼽았을 정도로 '과학기술 인재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창작된 송혜경의 「인재」는 청년 물리학자인 태성민의 '비선형 동력학 연구'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지도자 김정은의 세심한 배려와 탁월한 지도력을 형상화함으로써 당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문학적 욕망을 보여준다.

2. '미지의 세계'를 견인하는 오늘의 과학자

1) 청년 물리학 연구자 '태성민'의 성과와 주변인의 시기(猜忌)

작품은 김정은이 집무실에서 '2·16과학기술상'을 수여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다가, '국가최우수과학자와 기술자 명단'에서 태성민의 이름이 빠져 있는 이유를 확인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김정은이 과거에 국가과학원을 방문했을 때 과학전시관 관장이 SCI급 국제학술지인 『물리학평론』에 태성민의 논문이 게재되었다고 말하면서 '카오스와 복잡계'가 '과학 분야의 신대륙'이지만, 대체로 유럽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한다면서 아직 "과학기술의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에서나 하는 미래의 과학"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정은은 태성민이 그런 '카오스와 복잡계 이론' 분야에 샛별처럼 등장한 '물리학의 인재'라는 점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특히 김정은은 태성민이 유럽의 이론물리연구소 소장인 미쉘과의 공동연구 3년 동안 꾸준하고 변함없는 과학탐구로 경이적인 성과를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 더구나 공동연구가 끝나기 1년 전부터 미쉘은 태성민이 조만간 노벨상도 수상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태성민에게 이론물리연구소의 번영을 위해 남아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태성민은 자신이 "조선의 한 평범한 과학자일 뿐"이라면서 모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변한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앞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

할 때 승리의 개가를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이 고국에 돌아온 태성민의 연구논문들을 "현실적 의의가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그를 상급연구사에서 연구조수로 강급시켜야" 한다고 비판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때 이과대학 지도교수인 지효빈은 새벽에 자신을 찾아온 태성민에게 카오스와 복잡계 연구 이외의 연구를 생각해보라고까지 권유한다. 하지만 태성민은 지도교수에게 자신의 연인과도 같은 '카오스와 복잡계 분야'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변한다. '미지의 세계'가 지닌 흡인력을 강조하면서 "과학자의 량심과 시대적 사명감"이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과학의 현실적 결과물'이 즉각적으로 가시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발견이 지닌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과학의 매력에 빠져 있음을 덧붙인다.

태성민이 전하는 '과학의 매혹'에 대한 확신을 확인한 지효빈은 과학자의 명예가 신념에 달려 있다면서 '에네르기 기초연구소' 산하에 태성민의 연구실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에네르기 기초연구소에 카오스연구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주위의 반대 의견을 물리치면서 제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의 인재(=지효빈)'가 '새로운 인재(=태성민)'를 알아본 셈이라면서 일부 근시안적인 사람들 때문에 인재의 운명이 바뀔 번했다며 다행스러워한다.

2) 태성민의 독학 연구를 후원하는 지도자의 최우수 과학자 선정 개입

태성민은 김정은이 후원해준 '비선형동력학연구실'에 연구자가 실장인 자신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에 허전해 한다. 그러던 중 카오스 연구에서 떠났다가 대학 박사원에 들어가 재교육을 받고 있는 동창생 동수림에게 연구실의 두 번째 주인이 되어 공동연구로 카오스의 세계를 개척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동수림은 태성민의 이중적인 성격을 보는 것 같아 슬프다면서 성민의 공동연구 제안을 거절한다. 통상적으로 북한 소설에서는 긍정적 인물의 제안을 부정적 인물이 거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형상화 원칙에 해당한다. 하물며 '고상한 인간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주체 사실주의 문학에서 '긍정적 인물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목이 역설적이게도 '당 문학적 지침'을 넘어서 북한 소설의 리얼리티가 현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출되고 있는 작품임을 보여준다. 어쨌든 태성민이 다시 '사랑과 증오, 매혹과 불신, 어제와 오늘', '이성과 감성' 등의 이분법적 차이를 초월하자고 제안하지만, 동수림은 카오스 연구가 자신의 '과학자로서의 운명'을 빛내줄 수 없다면서 다시 거절한다. 결국 태성민은 학생 연구사와 함께 자신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돌아온 김정은은 김순석 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태성민이 왜 '국가최우수 과학자, 기술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질문한다. 그러자 김순석이 "지금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오늘의 시대를 대표하는 진정한 최우수과학자, 기술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데로 심사 측의 견해가 합쳐진 것 같"다고 보고한다. 심사위원들은 태성민이 '오늘을 대표하는 진정한 최우수 과학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사회주의 조선'을 향한 '세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조선'이 "이 행성에 하나뿐인 사회주의" 국가이며, "제국주의의 극악한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자강력 제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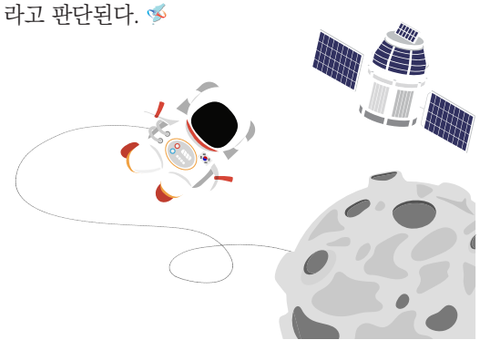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김정은은 김정일이 가르쳐준 "참다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태성민을 최우수과학자로 선정할 것을 지시한다. 즉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한다"는 김정일의 경구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김정은의 논리는 태성민이 "래일의 과학을 대표하는 최우수과학자"이긴 하지만, '미래를 견인할 오늘의 과학자'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최우수과학자'로 미리 선정해도 된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은 '김정일의 가르침'인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삶'의 중요성을 전제로 태성민을 '조국의 내일의 과학'을 대표하는 '오늘의 최우수과학자'로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송혜경의 「인재」는 '미래의 과학'을 연구하는 태성민 연구자에게 '오늘의 국가 최우수 과학자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겨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남한식으로 따지자면 이미 결정된 심사 결과를 지도자의 한마디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심사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지도자의 결심과 결정이 '일종의 알파요 오메가'로서 모든 과정과 결과에 우선하는 북한 사회의 특성상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태성민은 '국가 최우수 과학자'에 선정된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3. 과학 인재의 활용을 통한 자력갱생의 돌파구 마련

김정은 시대에 과학자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끊임없이 호명된다. '과학기술력'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제국주의의 봉쇄와 제재를 넘어 '자강력 제일주의'를 실현하면서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조선을 유지할 수 있는 비기(祕器)가 바로 '과학기술자'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과학인재 형상화'는 김일성과 김정일 이래로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식 '과학기술 강국'에 대한 강조 속에 대내외적 고립을 넘어 자력갱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북한식 특유의 자구책으로 활용된다.

송혜경의 「인재」는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물리학자로서의 태성민이 굳이 고국에 돌아와서 조국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과학적 신념의 화신임을 주목한다. 물론 주변 연구자들의 시기와 질투 섞인 불편한 시선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려는 '미래 과학자'로서의 진가는 '김정은의 지속적 관심과 배려'로 가능하다는 것이 '소설의 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료 연구자인 동수림과의 갈등이나 지도교수의 잘못된 제안 등이 작품 속에서 서사적 리얼리티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동시대 북한소설 중 주목을 요하는 유의미한 텍스트라고 판단된다.



오태호는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에 당선되었다. 평론집으로 『오래된 서사』, 『여백의 시학』, 『환상통을 앓다』, 『허공의 지도』, 『공명하는 마음들』 등이 있으며, 연구서로 『문학으로 읽는 북한』, 『한반도 평화문학을 상상하다-21세기 분학문학의 현장』 등이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3. 07+08. Vol. 123

문화 모니터 - 우표로 보는 남과 북47

겨레의 옷 한복 ②

이상현 민화협 체육교류위원 · 대한하키협회 회장

지난 호에서 남북의 여자 한복의 모습을 우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남과 북에서 1970년대에 발행한 남자 전통의상 우표를 소개한다. 남측의 우표는 1973년 발행된 의상시리즈 중 남자의상 5종이다. 먼저 구장복(九章服)은 검은 바탕에 아홉 가지 무늬를 수놓은 임금의 대례복으로 왕위에 오를 때나 종묘 제례 때, 정초의 하례식이나 비(妃)를 맞을 때 입었던 옷이다. 다음으로 곤룡포(袞龍袍)는 왕이 집무 시에 입던 정복(正服)으로 가슴과 등, 양어깨에 용의 무늬를 금으로 수놓은 원보(圓補)를 붙인 옷이다. 강사포(絳紗袍)는 왕이 입는 붉은 색의 조복(朝服)으로 머리에 원유관(遠遊冠)을 쓰므로 '원유관포' 또는 '원유관복'이라고도 하였다. 경축일에 임금이 조정에서 신하로부터 하례를 받을 때 입었던 옷이다. 금관조복(金冠朝服)은 조선시대의 남자 의복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으로서 문무백관의 예복이었다. 마지막으로 구군복(具軍服)은 조선시대 무관들이 입던 옷으로 머리에는 자주색과 붉은색 공작털이 달린 전립(戰笠)을 쓰고 몸에는 동다리를 입은 위에 전복(戰服)을 덧입었다. 허리에는 전대피를 띠고 환도(環刀)를 찼으며 어깨에는 동개(筒箇)를 메고, 손에는 술이 달린 동체를 들어 무관의 위엄을 갖추었다.

북측은 1979년 '민족의상'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시대 무관복을 소재로 6종의 우표를 발행했다. 우표에는 '리조시기의 무사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조선우표사에서 발행한 우표목록에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무사복'이라는 부제와 함께 무관의 갑옷차림 우표 4종과 전복차림 1종 그리고 병사의 옷차림 1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태조 이성계에 의해 개국된 조선시대를 '조선봉건왕조'라고 부르는데, 이 우표에서 다루고 있는 옷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1392년~1910년)의 옷들이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까지 1970년대 남북에서 발행한 전통의상 우표들을 살펴보았다. 남측은 왕실의 의상을 중심으로, 북측은 여성은 평상복을 남성은 무관복을 소재로 삼았다. 다음 호에서도 1990년대 이후 남북의 전통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남측 남성 의상시리즈

구장복 / 1973.3.30. 곤룡포 / 1973.5.30. 강사포 / 1973.7.30. 금관조복 / 1973.9.30. 구군복 / 1973.11.30.

북측 남성 민족의상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무사복 / 1979.8.6.

이상현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총학생회연합인 학생연대21 의장,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한하키협회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민화협 체육교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평양의 조선우표사를 방문하기도 했던 우표수집가로서 우표를 통해 남과 북의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남북 우표 교류에 대한 공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회원단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6월 1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①) 연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남북의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시민의 힘으로 이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평화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6/15~7/27)'을 선포하고,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100만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 △7월 22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7월 27일 '정전 70년 국제 심포지엄' 등 평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홈페이지 참조: https://endthekoreanwar.net/)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제11회 따뜻한 한반도 포럼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사장 이동섭)이 5월 17일 제11회 따뜻한 한반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②) '최근 북한 주민 취사난방연료 현황과 북한 연탄윤전기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는 강미진 엔케이투자개발(NKID) 대표가 '2022년 겨울 북한 주민들 취사난방연료 현황과 코로나 시기 북한 농민시장의 변화'를, 조찬제 운영위원(〈사랑의연탄〉 운영위원/ 전 석탄공사 감사과장)이 '북한 에너지 개발 협력 추진과 중단 요인 공유'를, 조원기 수석매니저(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가 '개도국 현지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대안 취사연료 사업 소개: 우간도 사탕수수 취사탄 사회적기업 사례'를, 박일수 팀장(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 '〈사랑의연탄〉 대북 연탄 윤전기 지원 추진현황과 전망'을 발표했다.

(홈페이지 참조: https://lovecoal.org/)

2

3

한반도평화경제포럼, MZ세대와 함께 하는 통일미래 포럼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사장 안봉락)은 6월 7일 청년문화공간JU에서 'MZ세대와 함께 하는 통일미래 포럼'을 열었다.(사진③) 이번 포럼은 '신통일미래구상의 실천적 접근'과 'MZ세대의 통일미래구상'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최대석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종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으로는 외교안보분야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교류협력분야 이승환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경제협력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문화협력분야 최종환 성균관대 메타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2세션에서는 한가선 민주평통 청년교육분과 상임위원의 사회로 각 분야 청년들의 발표가 있었다. 연구분야로는 김경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수료생, 기업인으로 노현수 LCS코리아 대표, 창업가로 박명호 전 리틀버즈 대표, 활동가로 홍서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과장, 예술인으로 안지은 시인이 함께 했다. 통일부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유튜브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반도평화경제포럼 02-535-1961)

백두산문인협회, 제21회 백두산 역사문화탐방

백두산문인협회(회장 김윤호)에서 오는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제21회 백두산 역사문화탐방'을 개최한다.(사진④) 백두산 천지, 압록강, 고구려 유적지(광개토대왕릉, 장수왕릉, 국내성) 등을 찾아가는 이번 행사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느끼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의 열망을 더욱 키워가기 위해 기획됐다. 6월 12일부터 40명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며, 참가비 최종 완납 기한은 7월 17일까지다.(문의: 백두산문인협회 02-2238-0003)

4

경기도 파주 평화기행 세 번째 이야기

글·사진 **이영동**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① 덕진산성에서 바라본 초평도와 황금벌판.
② 해마루촌 인근 고라니의 모습.

판문점으로 가는 관문 캠프 보니파스를 뒤로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군내면 읍내리에 나지막한 백학산이 나온다. 지금은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지만 읍내리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6·25한국전쟁 전에는 꽤 번화했던 곳으로 추측할 수 있다. 2015년 8월 4일 백학산 인근에서 1사단 GP 수색대원 8명이 DMZ 수색 정찰을 위해 철책 통문을 넘다가 지뢰를 밟았으며, 부사관 2명이 무릎과 발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 방송이 중단된 지 11년 만에 DMZ 11곳에서 대북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북한 인민군 전선사령부는 "대북심리전 방송을 즉시 중지하고 심리전 수단을 모조리 철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심리전 수단들을 초토화해 버리겠다."면서 고사포와 76.2mm 평곡사포를 발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국군은 155mm 자주포 29발을 군사분계선 500m 지점에 발사하였다.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를 통해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전선 지대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였으며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였고 남북은 국지전 직전까지 가는 살벌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남북은 남한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대남 비서와 황병서 총정치국장 간의 2+2 고위급접촉을 하고 무박 3일 43시간의 대화를 거쳐 북한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고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남한은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단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남북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나,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접경지역의 기상도는 맑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흐려지면 포탄이 오고 간다. 그때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바쁜 농사일을 하다가도 대피소로 피신해야 한다.

긴장이 상존하는 고요

파주에서 임진강은 민통선(민간인통제선) 경계선이다. 즉, 임진강 북쪽은 민통선 지역으로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민통선 백학산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임진강에 접한 덕진산성이 나온다. 1300년 전 고구려 때 최초로 성벽을 쌓았으며, 이후 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축성되었다. 덕진산성은 인조반정 때 장단부사 이서가 주력부대인 700여 군사를 훈련시켰던 곳이다. 반정에 참여한 군사는 1,400명 정도였으며, 이서의 정예군을 제외하고는 여러 부대의 혼성군으로 오합지졸에 가까웠다. 1623년 3월 노심초사 기다리던 능양군(인조)은 연신내에서 뒤늦게 도착한 이서의 정예군을 만나서 반정에 성공하였다. 이서(李曙)가 늦게 도착했다고 해서 연서역(延曙驛), 능양군이 늦게 신하를 만났다고 해서 연신내(延臣)라는 지명이 생겼다. 이서는 반정군을 이끌고 한양으로 출발할 때 부인에게 반정이 성공하면 돌아오는 나룻배에 붉은 기를 달고 실패하면 흰 기를 달고 오겠다고 약속했다. 반정에 성공하여 붉은 기를 달고 장단으로 오던 배에 뱃사공이 무심결에 흰색 저고리를 걸어 두었는데 노심초사 이서를 기다리던 부인은 멀리에서 오고 있는 나룻배에 백기가 달린 것으로 착각하여 임진강에 투신하였다. 이서는 아내가 투신한 덕진산성 언덕에 덕진당을 짓고 혼을 위로했다는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필자가 덕진산성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60년 가까이 아무도 접근하지 않아 산성과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다. 특히, 산성에서 바라본 임진강 너머 황금벌판은 절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차례 발굴을 거치면서 여기저기 새롭게 성을 축조하고 단장하면서 예전의 풍치가 사라진 인공으로 조성된 공원 같아 마음이 무겁다. 덕진산성에서 바라본 임진강 가운데는 53만 평의 초평도라는 섬이 있다. 대부분이 논이었던 이곳은 전쟁 후 민통선으로 묶이면서 70년 동안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복원되고 습지가 조성되었다. 습지의 크기는 파주 여러 습지에서 가장 크다. 5공 시절 개인에게 불하되어 지금은 개인소유로 되어있으며, 경기도는 소유자에게 주변의 골재채취권을 주고 초평도의 기부채납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으나, 아직 개인소유로 남아있다. 초평도는 경기도가 탐내는 DMZ 생태공원 후보

③ 가수 조용필이 1960년대 후반 무명시절 활동했던 장파리 미군클럽 '라스트 찬스'.
④ 하포리에 있는 허준의 묘소.

지이다. DMZ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면 철조망이 제거되어 민통선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섬은 덕진산성처럼 새롭게 조성되고 옛 모습을 잃을 수도 있다. 개발과 보전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초평도 인근에 임진나루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선조가 황급히 임진강을 건넜던 나루이다. 율곡 이이가 화석정에 불을 붙여 도강길을 밝게 비추어주었다고 선조수정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찾는 이 없는 북한군 묘지

덕진산성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민통선 마을 해마루촌이 나온다. 해마루촌의 법정 이름은 동파리이다. 발음상 어감이 좋지 않아 순우리말로 바꾸었다. 파주 사람들은 파주에는 장파리, 금파리, 동파리 3대 파리가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해마루촌 60호는 2001년에 입주가 이루어진, 가장 늦게 만들어진 민통선 마을이다. 민통선 내 장단지역이 고향인 실향민들이 모여 만든 마을이다. 실향민이라기보다는 소개민이다. 이들은 1951년 11월 이곳에 주둔한 군부대의 소개명령으로 강제로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다. 작전상 잠깐 나가 있으라는 말만 믿고 가재도구나 숟가락 하나 챙겨오지 못하고 소개되었다가 무려 50년 만에 새롭게 마을을 조성하여 입주하였다. 위에서 마을을 바라본 풍경이 높은음자리와 같아 높은음자리 마을로 불린다. 마을 주민의 초청을 받으면 이 마을에 들어갈 수 있다. 외지 사람도 이 마을에 농토가 있으면 출입증을 발급받아 수시로 들어갈 수 있다. 해마루촌 인근에는 소파 규정에 따라 1973년 4월 미군에 공여된 총 215만 평 규모의 미 8군 스토리사격장이 있다. 처음에는 미군 2사단이 사용했으나 미 8군이 사용하면서 오키나와 주둔 미군들이 와서 훈련을 하기도 한다. 이 지역이 공여될 때 개인소유의 토지도 공여되어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산불이 자주 발생했는데, 올해 3월에도 이틀간 산불이 났지만 지뢰매설지역이라 소방헬기로만 진화하였다.

해마루촌에서 하포리로 가면 동의보감의 저자 구암 허준 묘소가 있다. 한국전쟁 전에는 황해도에 있는 후손들도 자주 찾아왔다고 알려져 있으나, 전쟁이 끝나고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실묘되었는데, 1991년 9월 발견하였다. 묘 주변은 지뢰밭이었으나 이미 도굴된 채 발견되었다. 지뢰를 피해서 어떻게 도굴했는지 도굴꾼의 솜씨에 감탄할 뿐이다. 예전에는 허준 묘소가 DMZ관광 코스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폐지되어 초청받아야만 방문할 수 있다. 임진강 남쪽 답곡리에는 '적군묘'로 불리는 북한군·중국군 묘지가 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하여 시진핑 주석에게 유해송환을 약속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군은 중국으로 송환된 이후 '북한군 묘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9년 국방부는 북한군 묘지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인수한다는 협약을 경기도와 하였으나 올해 들어 협약이 소멸되었다. 이 묘지에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 유해 810구와 흔히 무장 간첩으로 불리는 61구도 묻혀 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국군의 유해도 아직 북한에 묻혀 있다. 올해가 정전 70주년으로 상호 인도주의 차원에서 유해송환을 기대해 보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영국군 설마리 전투와 엘리자베스 여왕

'라스트 찬스'를 아시나요? 국민가수 조용필이 무명 시절 미군 클럽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 이후 장파리(장마루)는 장단 출신 실향민들이 대규모로 정착한 곳이다. 임진강 북쪽 너머 미군이 주둔하면서 조용한 시골 마을인 장파리에는 수많은 클럽이 생겼고, 네온이 휘황찬란한 유흥가로 변했다. 기지촌 여성이 7~8백 명에 달하는 환락가가 장마루 1960년대 후반의 모습이다. 서울 명동보다 화려하고, 방값도 비쌌다고 한다. 당시 조용필은 '라스트 찬스'라는 미군 클럽에서 활동하였다. 미군이 동두천으로 떠나자, 이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다시 여느 시골 마을로 돌아온 장마루에는 '라스트 찬스' 건물이 남아있어 옛 영화를 대변하고 있다. '라스트 찬스' 건물은 한동안 시래기를 말리는 창고로 이용되다가 지금은 양식당으로 변했고, 식당 내부 벽에는 미군 클럽 시절 이집트풍의 벽화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2021년에는 경기도 등록문화재(근대 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그 밖에 미군이 만들어준 장파재건중학교, 정미소 등이 쓰러질 듯 남아있다.

작년에 타계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1999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다. 여왕은 안동 하회마을과 파주를 방문했다.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하회마을 방문은 이해가 되지만 파주는 언뜻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나, 파주 적성면에 영국군 참전 추모공원이 있어 먼저 방문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영국군은 감악산 자락 파주 적성면 설마리 중성산 부근에서 괴멸되었다. 영국군 1개 대대 병력이 방어하는 설마리에 중국군 3개 사단이 몰려들면서 전투가 벌어져 거의 전멸했지만 3일을 버텨냈고, 남진을 그만큼 저지했다고 알려져 있다. 1951년 4월 22일 652명 부대원이 중국군 3개 사단과 맞서 싸우다 59명이 전사하고 526명이 포로가 되고, 67명만 간신히 탈출하는 괴멸적 타격을 입었지만 3일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영국군전적비는 설마계곡에서 전사한 크로스타샤 연대의 제1대대와 제170 박격포대 소대 장병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여왕은 머나먼 이국땅에서 전사한 참전군인을 가장 먼저 위로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영동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통일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 오랫동안 DMZ 접경지역을 답사하며 평화 해설사로 활약해온 평화통일 운동가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남북경제협력협회 엮음 | 평사리 | 2023. 5

지금 우리가 다음 우리에게 - 남북 경협 1세대 기업가 7인의 격정 인터뷰

2010년 남북 경제 협력이 중단되기 전, 7인의 중소기업인이 북한의 내륙 지역에서 어떻게 사업했는지 기록한 인터뷰집이다. 정치와 외교적인 리스크 관리 외에도, 지하자원, 농산물, 수산물, 의류와 생수 등 상품마다 고유한 생산과 품질, 물류와 통관, 금융과 투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경영의 측면에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 생생한 드라마를 들을 수 있다. 남북 경협의 1세대 선구자들이 쌓은 경험이 미래 남북 경협 기업들의 자양분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상품 수입에만 머물지 않고, 역으로 대동강 초입에 있는 대안항에 석탄 전용 항만을 건설해, 남과 북 간의 자원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던 서평에너지 이영성 대표, 마늘을 손으로 까는 단순 위탁 가공으로 독보적인 경쟁력과 수익을 얻었던 산과들농수산 김용관 대표, 의류 완성 공장을 단둥에 세워 품질을 한 단계 올리고, 별도 생산 법인을 동남아에 설립했던 ㈜지피의 정태원 대표, 북한의 천연기념물인 강서약수를 상품화하여 도입한 대동무역 김영미 전무(현 바로텍 대표), 두릅 등 식품 소싱 공장을 중국에서 나진, 원산으로 옮기고 미국 수출 길을 개척했던 승국물산 정경진 대표, 오랫동안 남북 경협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했던 드림이스트 이종근 대표, 북한 동해안 수산물의 독점 반입권을 확보했던 흥진교역 윤범석 이사 등 남북 경협 1세대 기업인들의 파와 땀의 이야기다.

임상순 외 | 박영사 | 2023. 4

남북한의 삶, 만남, 평화 이야기 - 남북한 출신 학자들이 함께 쓴

네 명의 저자는 북한을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소개하고 싶은 열정으로 집필을 시작했다. 저자 네 명 중 두 명은 북한 출신 연구자이다. 김병욱 박사는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북한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인텔리 관료 출신이다. 그는 북한 사회의 전반 영역을 파악하는 지적 저울의 무게추가 연구자 개인의 감정으로 기우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통일이 자본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닌 남북한 사람과 사람들의 마음이 닿는 손끝의 감정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북한 출신 저자인 최영일 박사는 양강도 김정숙군(옛 신파군)에서 태어나 함경북도 맨 끝자락에 위치한 온성군으로 추방된 평범한 탄광 노동자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철도 부문 탄광에서 일했던 관계로 그 역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철도 노동자로 근무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장남에 대하여 간절히 바랐던 대학 공부와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장 이루고 싶던 소원인 학업의 꿈을 남한 입국 후 마침내 이룰 수 있었다. 그는 북한 이탈주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정부 등록금 혜택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 출근과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면서 학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다. 지금의 남북 관계는 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하지만 추위가 지나면 봄이 오듯이 언젠가 이 긴장 관계가 녹으면서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그 여정에서 이 책이 유용한 안내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 가고 있다.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고, 북한의 도발 행위가 끊이지 않으며, 현실 생활을 우려하는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적 사고가 퍼져가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통일은 그렇게 쉽게 포기해 버릴 과제가 아니다. 통일독일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공존을 내세웠지만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평화공존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평화를 추구하되 장기적인 목표인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물론 지금의 여건으로 통일을 단기적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도 통일과는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통일에 관한 남한 내부의 분위기도 통일이란 엄청난 과제를 이끌어갈 만큼의 준비는 미흡하다. 소위 남남갈등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오늘의 국제정세와 기술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동을 고려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는 없겠으나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통합을 이루어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보자는 소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영선 외 | 늘품 | 2023. 4

백두고원 트레킹

장군봉에서 삼지연까지 겨레의 땅을 밟다. 뉴질랜드에서 국제여행사를 운영하는 안영백씨가 2018년 백두산 탐방 트레킹 코스 개발을 북측과 합의하고, 2019년 9월 백두산 장군봉에서 삼지연까지 4박 5일간의 트레킹을 진행했다. 그 발걸음을 따라 직접 촬영한 사진과 이야기를 담아 『백두고원 트레킹』을 펴냈다. 북녘땅을 통해 백두산을 오른 작가는 백두산 천지에 발을 담그고 백두고원에서 야영을 하며 장군봉에서 삼지연까지 수백 리 겨레의 땅을 걸으며 그의 카메라에 아름다운 대자연을 담았다. 한국인이 담은 최초의 백두고원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우리가 가지 못한 그 길을 사진으로 선보인다. 우리에게 익숙한 백두산은 중국을 통해 올라 만나는 백두산이다. 북녘땅을 통해 백두산을 오르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데, 그것을 해낸 한국인의 사진과 이야기를 여기에 선보인다. 저자는 백두산 천지에 발을 담그고 백두고원에서 야영을 하며 장군봉에서 삼지연까지 수백 리 겨레의 땅을 걸으며 그의 카메라에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다. 한국인이 담은 최초의 백두고원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우리가 가지 못한 그 길을 사진으로 선보인다. 민간인이 접하지 못하는 향로봉을 올랐을 때의 감격보다 수천 수만 배의 장엄한 용솟음이 몰아친다.

안영백 | 평화의길 | 2023. 6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2호의 정답은 '손정도 목사'입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주소를 명확히 보내주세요. 선정의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권두 인터뷰

손명원 신임 대표상임의장의 포부와 삶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부가 남과 북이 모두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인 점과 부친이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인 손원일 제독인 점을 알게 됐습니다. 손정도 목사의 걸레정신처럼 경제와 기술협력을 기반으로 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묵묵히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화해를 넘어 화합을 이루는 그 날이 빨리 오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배성희** 서울 서초구

특집–2023년 남북관계, 무엇을 할 것인가

최근의 한반도 정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중·일 대 북·중·러 구도의 재편이 '신 냉전'이라 불릴 만큼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칫 한반도가 첨병이 되어 신 냉전 구도 속에서 우리 민족 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위기 관리를 강조한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어렵겠지만 기후위기, 보건환경 등에서의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내 신 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윤정후** 충남 천안시

이슈 앤 포커스

현재 북한의 농업 현황에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북한의 고립과 경기침체가 더욱 심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식량문제는 '부족'에서 '위기'로 한층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더 늦기 전에 붕괴 직전에 놓여있는 북한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 **김동석** 서울 동대문구

민족화해 네트워크④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해외에서의 활동 소식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교민들이 중심이 된 평화운동 소식은 종종 접해왔는데, 현지인들이 주축이 되어 열성적인 활동을 하는 민화협 프랑스협의회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위해선 남북 당사자의 의지만큼 국제사회의 지지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프랑스협의회 청년위원회가 우리의 민간 통일 외교관으로서 귀중한 자산이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큰 응원을 보냅니다. – **유준환** 인천 서구

우표로 보는 남과 북

남과 북이 우리의 전통 '한복'을 입고 함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우리 어머니 세대의 옛날 사진을 보면 기성복이라고 여겨질 만큼 모든 사진에 한복이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우리의 전통 '한복'을 입을 일이 점점 줄어들어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명절이나 특별한 날 한복을 입고 전통의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모습을 전 세계를 향해 뽐내는 그 날이 오도록 저부터 실천해야겠습니다. – **박동호** 부산 진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PC와 스마트폰에서

〈민족화해〉를 만나보세요

<민족화해>는 민화협의 생생한 소식과
남북 이슈, 퀴즈 그리고 독자 참여까지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만 스캔하면 민화협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화협 블로그 | 민화협 페이스북 | 민화협 홈페이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국립통일교육원과 함께하는

2023 대학생 통일 체험교육

캠프개요

목 적	미래세대 평화감수성 제고 및 통일 역량 강화
대 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인 원	회차당 30명
주 최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참가방법

참가특전	수료증, 기념품 증정
참가비용	전액 무료
신청방법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을 통한 개별 접수
신청기한	6월 9일 ~ 7월 14일
선발통보	7월 18일 참가자 개별 휴대전화로 선정 안내
문 의	학교통일체험교육 사무국 02-3669-3745

캠프일정

1회차 8월 7일(월) ~ 8일(화)
철원-포천(백마고지 전적비, DMZ두루미평화타운,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

2회차 8월 16일(수) ~ 17일(목)
강화(강화평화전망대, 대명헌, 난정평화교육원, 망배단)

3회차 8월 21일(월) ~ 22일(화)
강화(강화평화전망대, 대명헌, 난정평화교육원, 망배단)

4회차 8월 28일(월) ~ 29일(화)
철원-포천(백마고지 전적비, DMZ두루미평화타운,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